

雲門

불기 2557년
겨울호
통권 제123호
雲門僧伽大學





구름문을 펼치다 통권 122호 가을, 『운문』, 댓글

㉔ 선배탐방! 중국불교사 특강 후 계환 스님의 강의에 대한 여운이 오래 남았었는데 근황과 안부, 그리고 많은 좋은 글을 읽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 사집과 경운

㉔ 허덕이며 보낸 가을철, 무정설법無情說法 글을 보고 어리석게 살고 있던 내 모습을 뒤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위한 시간이었던 걸...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한테 미안할 뿐이다. / 사집과 감응

㉔ 호거산 가을은 색색들이 장엄을 보여줍니다. 환희심 나는 치문의 첫 가을이 벌써 뒷모습을 보입니다. 조용히 걷습니다. 더 깊이... 더 고요하... 딸깍 들어맞는 순간을 향해서... / 사미니과 현요

㉔ 가만히 앉아서 인도를 다녀오고 회주스님의 법문을, 법륜 스님과 계환 스님을 뵈 수 있으며 상반스님들을 만날 수 있으니 운문지의 넓고 넓은 넉넉함 속에 미소지으며 내가 아닌 함께하는 우리를 느껴본다. / 사미니과 일목

㉔ 불전부도에서 보이는 붓다의 수호신, 신장의 역할을 하는 독립적 신격인 금강역사가 흥미롭게도 그리스의 영웅 신 헤라클레스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점, 그리스인들이 불교를 받아들인 점, 금강역사의 기원, 유래 등 나의 상식의 문을 넓혀주는 좋은 코너였습니다. / 사미니과 월인

㉔ 운문지의 호수가 늘어가듯, 운문지의 계절이 변화가듯 나 또한 거듭거듭 태어나고 변화될 것이기에 내일을 기대 하듯 따뜻한 첫 운문사에서 겨울호를 기다립니다. / 사미니과 선정

雲門

목차

- | | |
|-------------------|-----------------------------------|
| 02 호가산 운문사 | 구름문을 펼쳐다 - 통권 122호, 가을 |
| 04 죽림현 | 새 시대 명성 |
| 06 결제법문 | 출가자의 바른 안목 설정 |
| 08 교수논단 | 『碧岩錄』 제16칙 『鏡清曄喙』의 현대 교육적 意義 ① 영덕 |
| 12 풍경소리 | 사집반 스님들 흥분 |
| 14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 진심으로 하는 보시 진광 |
| 16 기획연재 | 역경에서 피어난 뉴요커들의 악사여래불 운성 |
| 19 깨달음으로 가는 길 | 가릉빈가의 음성 편집부 |
| 20 담소 | 담과 소, 그리고 내비게이션 선업 |
| 22 특별기고 | 천년 역사와 숨결의 보고, 팔만대장경 상안 |
| 26 想 | 好事不如無 현사 |
| 28 차례법문 | 불사수행佛事修行에 관하여 유진 |
| 30 학인논단 | 현대사회의 죽음 문제에 대한 불교적 이해와 고찰 ② 현우 |
| 34 산사의 별 | 감로비로 살아난 초심 원일 |
| 36 수행의 두레박 하나 | 알에서 깨어나기 덕해 |
| 38 수행의 두레박 둘 | 행복의 세 잎 클로버 명훈 |
| 40 수행의 두레박 셋 | 작은 활력소 제준 |
| 42 노스님 톨방 | 노스님이 들려주시는 참된 이야기 윤상 |
| 45 자유기고 | 존경하는 노스님께... 선학 |
| 46 끝없는 여정 | 시봉지향待奉之香 혜평 |
| 50 이 한 권의 책 | 붓다의 딸, 세상을 비추다 일원 |
| 52 운문논평 | 스님 스타일 편집부 |
| 54 운문소식 | |
| 55 등불 | 통권 123호, 겨울호, “同事…달” |



새 시대

명성 /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대한민국 국민은 제 18대 대통령으로서 여성을 뽑았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불교가 왕성한 신라시대에 여왕을 가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후 다시 우리의 손으로 여성을 지도자로 뽑았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지난 12월 20일 아침 대통령 당선자가 국립현충원에서 헌향하기에 앞서 방명록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하는 글을 남기는 것을 TV를 통해 봤습니다. 고요한 새벽별이 눈 비비는 동트는 시간임을 감지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도자는 물론이려니와 온 국민이 새겨 두어야 할 부처님 말씀 '일곱 가지 쇠퇴하지 않는 법-七不退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때 부처님이 라아자그리하 기사굴산에 계실 때입니다. 마가다(摩竭)국의 왕 아사세는 발지跋耆國을 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신하 우사를 부처님께 보내 정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오라고 보냈고, 명령받은 우사는 세존께 예의를 표한 뒤 여쭙었습니다.

“발지국 사람들은 스스로 용맹스럽고 건장하고 부강한 것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아사세 왕이 치고자 하오니 혹시 스승께서는 무슨 가르침이라도 있으시옵나이까?”

그러자 부처님은 뒤쪽에서 부채질하고 있는 아난阿難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발지국 사람들이 자주자주 모임을 가져 서로 바른 일을 의논한다고 들었는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하고 아난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른과 어린이들은 서로 화순和順하여 갈수록 더 왕성한 것이며, 언제나 안온하여 아무도 침노할 수 없을 것이다. 아난아, 너는 발지국의 임금과 신하는 서로 화순하고 윗사람 아랫사람이 서로 공경한다고 들었는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또다시 부처님은 아난에게 다음과 같은 나머지 다섯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발지국 사람들이 법을 받들어 금기禁忌할 바를 알고 예도禮度를 어기지 않는다고 들었는가?”

“발지국 사람들이 부모를 효도로 섬기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여 순종한다고 들었는가?”

“발지국 사람들은 종묘宗廟를 공경하며 조상을 받든다고 들었는가?”

“발지국 아녀자들이 방정하며 말과 웃음이 음란한 데 미치지 않는다고 들었는가?”

“발지국 사람들은 사문을 높이 섬기고 계戒를 가지는 사람을 존경하여 공양한다고 들었는가?”

이에 대해 아난은 모두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위와 같은 대화를 들은 대신 우사는 말했습니다.

“저 나라 백성들이 비록 한 가지 법만을 행하더라도 오히려 정벌할 수 없겠거늘 하물며 일곱 가지를 지킴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저는 나라 일이 많기 때문에 우선 하직을 사뢰고 돌아가겠습니다.” 하고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세 번 돌고 공손히 읍揖하고 물러갔습니다.

- 장아함경 中 유행경遊行經 -

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국민대통합, 경제민주, 민생에 대한 근원적인 답이 이 법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호거산 운문사는 정갈하고도 다소곳한 눈송이들이 소복소복 피었습니다. 하얀 고무신 신고 국민이 행복한 시대, 사람이 먼저인 시대를 바라며 도량 한번 거닐어야겠습니다. ☺

출가자의 바른 안목

雪靖 元老 / 덕숭총림 방장



임진년도 벌써 다 지나가고 겨울을 맞이하여 결제가 되었습니다. 결제結制에 임하는 우리들의 구경목표가 무엇인가? 또 최고의 경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불교적인 용어로 해탈解脫이라고 하고 열반涅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見性이라고도 하지요. 그 자리는, 그 경지는 기쁨이요, 환희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대조화의 세계이고 대원융圓融의 세계입니다. 자타自他가 둘이 아니고 불아物我가 둘이 아닌 그러한 대원圓妙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 경지는 자유자재한 경지이고 걸림이 없는 경지이며, 대자비의 경지, 대지혜의 경지, 안심입명安心立命의 경지입니다.

안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편안해서 아무 두려움도, 근심 걱정과 괴로움도 없는 부동심不動心, 무심無心の 경지를 말합니다. 그 안심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經을 보고 염불을 하고 주력을 하고 애써 참선을 합니다. 이 목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어하면서 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결제를 하고 정진도 하는 것입니다.

이 해탈의 경지, 열반의 경지인 이것을 항상일로向上一路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傳할래야 전할 수 없고 받으려 해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전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최고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자기가 스스로 정진해서

체득體得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진精進해서 정력定力을 키우는 수밖에 없지요. 선정의 힘을 키우지 않고서는 이 경지에 도달하려 해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데 근래의 한국불교의 선방은 정적靜的인 공부만을 하다 보니 정처靜處에서는 조금 공부가 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동처動處에 가서는 힘이 없습니다. 경계가 없는 데서 무심無心한 것은 정定이 아닙니다. 경계를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정定입니다. 힘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번뇌 속에서 공부를 지어야 하며, 참으로 용맹심을 가지고 모든 몸과 마음을 다 쓸어 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공부하는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서 공부에 힘이 떨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참선공부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 이 길밖에 없구나...' 그러나 십 년 이십 년 삼십 년을 해도 죽 떠먹은 자리처럼 그냥 그 자리에 마냥 있다 보면 진척이 없습니다. 참선하는 이들은 그렇게 적당히 모양내기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본인이 참으로 참용맹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문득 신명身命을 잇을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비로소 다 통할 것입니다.

해탈, 열반을 향해서 가는 모든 스님들은 출발점을 잘 시작해야 합니다. 지식知識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식意識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도 의식이 잘못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중노릇을 시작할 때에는 확고한 신념으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똑같이 머리를 쥐고 가사장삼 입었다고 다 중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가했으면 출가한 자로서 그 정신에 승됨으로의 의지가 분명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모든 선사들이 그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하는가? 첫째는 신심信心이 확고해야 합니다. 신심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성불自性佛을 믿는 것으로, 내 안에 부처가 있고 내가 그대로 부처라는 자성自性의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를 확신하는 것이 첫 번째 신심입니다. 두 번째는 시방의 모든 불보살과 역대 선지식을 철저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보면 자성불에 대한 믿음도 분명하지 않을 뿐더러 신심들이 없습니다. 불조佛祖에 대한 철저한 신심이 항상 마음 속에서 끓어올라야 합니다. 그 위대한 삶! 그 거룩한 삶! 그 진실한 모습! 그 지혜로운 덕상德相에 항상 감동하고 믿고 따르겠다는 원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신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회도 하고 주력도 하고 염불도 하고 참선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마음 속에 신심이 용광로처럼 끓어올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항상 환희심이 넘쳐 납니다. 불전佛前에서 오만하고 경만을 떨며 겸손하지 못한 자는 모두 별거 없습니다. 수행하는 자의 모습은 겸손하고 환희심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력을 가져야 합니다. 참선을 하든, 간경을 하든, 주력을 하든 철저해야 합니다. 적당이가 아닌 확고부동確固不動해야 합니다. 이 주옥같은 부처님의 경전을, 조사스님들의 금쪽 같은 말씀을 쉽게 넘기지 말고 철저히 익혀서 중생들에게 회향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 조사스님의 말씀을 등지고 뛰가 뛰지도 모른 채 큰 소리 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위하고 구도

求道를 위해서 절에 사는 것이 밥 먹고 살려고 절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공심公心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심私心이 끼면 삿된 마음인 사심邪心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삿된 마음은 모든 공덕을 깨부수는 도구입니다. 인간으로 가장 위대한 자는 사심私心이 아닌 공심公心을 행하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중생심을 깨끗이 해서 수많은 지혜와 공덕과 위신력, 자비를 발현시켜서 그것을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강경金剛經』에 말하기를 사상四相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아상我相이 끊어지면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상我相을 없애라는 것이 나라는 것, 즉 사심私心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아상我相과 사심私心이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을 때는 공부가 될 수 없습니다. 아상我相과 사심私心이 깨어지는 데서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실한 현실 앞에 닥쳐오는 일들이 급하고 급합니다. 출가자들은 생사를 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행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게 되면 공덕이 절로 쌓이고 복덕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중노릇도 복덕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우리 앞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100년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이 몸뚱이는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고 맙니다. 옛 조사스님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가사袈裟 아래에서 인신人身을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잘 살아야 합니다.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 동안거 기간 동안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는 수행정진 하시길 바랍니다. ॥

*이 원고는 운문사 동안거 결제 법문을 녹취한 것입니다.

『碧岩錄』 제16칙 「鏡清啐啄」의 현대 교육적 意義 ①

영덕 / 운문사승가대학 강사

목 차

I. 프롤로그 / 禪師와 도둑

II. 「鏡清啐啄」의 현대 교육적 의의

1. 「鏡清啐啄」의 이해 돕기
2. 선문답의 요점은 해체와 속도
3. 교육의 목표와 불교 교육의 이상향
4. 현대 교육 방법과 「鏡清啐啄」의 교육적 의미

III. 에필로그 / 역설(para-doxa)적 선문답

참고문헌

식전환을 위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흠침’을 들뢰즈 식¹⁾으로 표현하면 ‘재빨리, 단번에 생성되는 것으로, 흠치고 흠침을 당하는 것은 모두 구체적인 한 순간의 마주침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선문답은 마주침의 순간인 시절인연을 오롯이 표현하고 있다. 좋은 도둑이 흠침 대상에 대해 그러하듯, 탁월한 선승들은 단 한번 힐끗 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완전히 간파해버린다. 그래서 질문이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그 질문을 막아버리고 상대방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상대의 허를 찌른다. 이때, 자신이 이미 예리한 칼날에 격파되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머뭇거리는 자라면 깨달음과는 아직 거리가 먼 자이다. 스승은 득실과 시비가 없는 완전한 그 자리를 드러내고 있지만 제자는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機緣²⁾마다 서로 맞고, 구절마다 서로 투합’ 되는 만남에서는 말과 말 사이에 어떤 머뭇거림도 없다. 거기서 파생하는 의미는 언어의 작용이 아니라 그대로 目擊丈夫이다. 그들은 서로의 사유를 표절하거나 모방하지 않는다. 언어를 뛰어넘어 서로의 사유를 흠치고 하하대소 크게 웃을 뿐이다. 흠치는 것과 같이 깨달음도 속도의 문제이다. ‘말 떨어지자마자 알아차려야 하고’ ‘알아차리자마자 떠나야 한다.’ 여기에는 어떤 인식작용도 끼어들 틈이 없다. 사유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생성의 문제이며, 배움은 모방이나 전달의 문제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흠쳐서 달아나는 기연의 一大事 因緣이다.

II. 「鏡清啐啄」의 현대 교육적 意義

1. 「鏡清啐啄」³⁾의 이해 돕기

啐啄同時는 닭이 달걀을 품어 병아리를 낳을 때, 병아리가 막 껍질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안에서 병아리가 쪼는 것을 ‘줄쭉’, 암탉이 밖에서 쪼는 일을 ‘탁쭉’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행

흔히 탁월한 선사를 도둑에 비유한다. 스승은 말해주는 자가 아니라 말해주지 않는 자이며, 제자는 주는 것을 받는 자가 아니라 교묘한 솜씨로 스승의 것을 흠치는 자이다. 다시 말해, 선문답은 상대방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인

해지므로 ① 禪家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서로 응하는 일, ② 師弟 간의 인연이 어느 기회에 동시에 맞아 더욱 두터워진다는 뜻, ③ 놓쳐서는 안 될 좋은時機에 비유하기도 하며 ④ 한편 가장 이상적인 師弟之間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 '줄탁'은 어느 한쪽의 힘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야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 만약 겹질 안의 병아리가 힘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겹질 바깥 어미 닭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병아리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 겹질을 경계로 두 존재의 힘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이 비유는 결국 이 세상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타인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이에 대하여 圓悟⁴⁾는 垂示⁵⁾에서 다음과 같이 부연하였다. '지극한 道에는 셋길이 없으므로,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이 감히 다가가기 힘들다. 正法은 보고 들

을 수 없고, 말이나 글과는 아득히 떨어져 있다. 만약 가시밭길을 헤치고 나아가, 부처님과 조사라는 집착마저 끊어 버리고, 온밀한 경지를 얻게 되면, 온 하늘이 꽃을 바치려 해도 길이 없고, 외도가 엿보려 하여도 문이 없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한 일이 없고, 하루 종일 설법해도 한 가르침도 없다. 자유자재하게 줄탁의 솜씨를 펴고, 殺活의 칼을 쓸 수가 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교화의 일에 종사하려면, 한 손을 들어 올리고, 한 손으로 잡을 줄 알아야 조금은 쓸 만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분의 일에서는 모두 쓸모없는 것이니 이 본분의 일을 어떻게 지어가야 할 것인가.'라고 말하고 있다.

경청 화상⁶⁾은 『祖堂集』 제10권 등에 그의 略傳이 있다. 圓悟의 '啼唱'⁷⁾에 경청 화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처음 설봉 화상을 친견

1)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년 1월 18일 ~ 1995년 11월 4일)는 20세기 후반 프랑스의 철학자, 사회학자, 작가이다. 1960년대 초부터 죽을 때까지 철학, 문학, 영화, 예술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저작들을 썼다. 가장 인기를 누린 책들은 펠릭스 가타리(Félix Guattari)와 함께 쓴 『자본주의와 정신분열 : 안티-오이디푸스』(L'Anti-Œdipe -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1972년)와 『천의 고원』(Mille Plateaux -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2, 1980년)이다. 1968년에 『차이와 반복』(Différence et répétition)을 썼으며, 1969년에는 『감각의 논리』(Logique du sens)를 썼다. 미셸 푸코는 "아마도 어느 날 이 세기는 들뢰즈의 시대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들뢰즈는 이에 대해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못게 만들고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격노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지닌 농담"이라고 말했다. 파리 8대학의 교수를 맡기도 하였다. 파리에서 태어나 삶의 대부분을 그 곳에서 보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카르노 고등학교에 출석했다. 1995년 11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 들뢰즈의 철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흄, 칸트, 니체, 베르그송, 푸코, 프란시스 베이컨을 재해석하는 '철학사가'로서의 들뢰즈이고, 다른 하나는 다방면의 개념들 즉 신체, 차이, 감각, 사건, 정신분열, 반복, 영화, 철학 등을 무한 질주하는 '생성의 철학자'로서의 들뢰즈다. 평소 주장했던 대로 이 둘은 들뢰즈라는 '실체'의 '양태'였으며, 서로 어긋나지 않았다. 가타리와와의 협업 이전인 초기 들뢰즈의 주요 철학적 프로젝트는 단도직입적으로 동일성과 차이성의 전통적 형이상학상 관계의 체계적 전복으로 요약된다.

2) 機는 機會, 緣은 因緣, 학인이 스승의 교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말하며 緣은 『臨濟錄』.

3) 『碧岩錄』 제16칙.

4) 圓悟克勤(1063~1125) 송대 임제종 양기파 스님.北宋 徽宗으로부터 佛果라는 호를,南宋 高宗으로부터 원오라는 호를 받았다.五祖法演 下의 3佛 가운데 1인이다. 재상 무진거사 장상영의 귀의로 夾山寺에 머물면서 『雪竇頌古』를 문인들에게 제창하고 垂示, 著語, 啼唱하였는데 문인들이 이것을 모아 『碧岩錄』을 엮었다. 또 『雪竇頌古』를 제창하여 『擊節錄』을 엮음. 문하에 대해종고 호구소룡 등 100여 인이 있다. 호구소룡이 편집한 『원오불과선사어록』 20권이 있다.

5) 선사가 수행자의 역량을 시험해 보기 위한 수단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답변을 통하여 그 역량을 판단한다.

6) 鏡清道忞(868~937), 운주 영가에서 출생. 어려서 출가하여 민천에 이르러 설봉의존을 참예하고 그의 법을 이었으니 本仁·玄沙·疏山·太原孚 등과 같은 시대의 인물이다. 법명은 도부, 시호는 순덕대사. 처음 설봉을 뵈고 종지를 얻은 뒤, 항상 줄탁의 기연으로 후학을 일깨우니 根機에 딱딱 맞추어 설법을 하였다. 그는 대중 법문에서 이르기를 "무릇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啼唱同時의 안목을 갖추고 줄탁동시의 작용이 있어야만 바야흐로 衲僧이라 일컬을 수 있다. 이는 마치 어미닭이 꼬리 하면 병아리도 꼬지 않을 수 없고, 병아리가 꼬려고 하면 어미 닭도 꼬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7) 古人의 古則이나 公案 등에 나타나는 일문일답에 비평을 가하고 스스로 거기에 공감하여 노래한 것.

하고 종지를 얻은 뒤에 항상 졸탁의 기연으로 후학을 지도하고, 학인의 근기에 맞추어 설법하였다. 그는 대중법문에서 ‘대개 수행하는 사람은 졸탁동시의 안목을 가지고 졸탁동시의 지혜작용이 있어야 비로소 수행승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병아리가 달걀 속에서 껍질을 쪼면 어미 닭이 밖에서 달걀 껍질을 쪼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 때 어떤 스님이 앞으로 나와서 질문하였다. ‘어미 닭이 쪼고 병아리가 쪼면 화상의 경지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좋은 소식이다.’ ‘반대로 병아리가 쪼고 어미닭이 쪼면 학인의 경지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本來面目이 드러나지.’ 이 때문에 경청 화상의 문하에서는 졸탁 기연의 이야기가 있게 되었다. 이 公案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는 哮啄同時이다. 즉 달걀 속에서 성장한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고 신호를 보내며 알을 쪼는 소리를 째이라고 하고, 그 순간 어미닭이 병아리가 알에서 나올 시기를 알고 밖에서 껍질을 쪼아 도와주는 것을 啄이라고 한다. 달걀 속의 병아리와 어미닭의 호흡과 氣息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禪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지도하고 불법을 체득하게 하는 깨달음의 인연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깨달음을 체득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학인이 좌선 수행으로 불법의 대의를 참구하는 內的 思惟와 스승이 올바른 지도와 교시를 제시하는 外的 사건이 동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경청 화상은 졸탁의 기연으로 학인들을 지도하였기 때문에 本則에서와 같이 어떤 학인이 道의 문제를 중심으로 문답을 하고 있다. 즉 학인은 “제가 달걀 속에서 쪼아 신호를 보낼 테니, 화상께서는 밖에서 달걀을 쪼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여 깨달음을 열고자 하오니 화상께서는 방편을 써서 학인이 빨리 깨닫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병아리가 어미닭에게 알에서 나갈 것을 재촉하고 있지만, 달걀 속에서 성장한 병아리의 부화시기가 아

직 되지 않았는데 어미닭이 껍질을 쪼게 되면 병아리는 죽고 만다. 그래서 경청 화상은 그대가 재촉하므로 껍질을 쪼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과연 무사히 살아나올 수 있을까?” 하고 걱정스럽게 응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미닭의 입장에서 병아리가 무리하게 재촉하며 요구하기 때문에 그의 死活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당연지사의 말이다. 졸탁동시의 작용이란 造作心이 없는 無心の 경지에서 作爲性 없이 자연스럽게 시절인연이 도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인은 자신 있게 다음과 같이 대꾸하고 있다. “만약에 살아남지 못한다면 천하의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만약 제가 불법을 깨달아 안목을 갖추지 못한다면 화상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圖悟는 “이 학인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살 것을 염려하며, 남의 일까지 걱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학인은 “한쪽만 쳐다보고 가는 놈 즉 單眼 看板漢”이라고 평하였다. 이 말의 뜻은 편견에 떨어져 융통성이 없는 놈이란 말이다. 즉 경청 화상의 유명한 졸탁동시의 법문에만 집착하여 자신의 수행과 근기는 고려하지 않고 화상의 가르침만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판대기를 짚어지고 한쪽만 쳐다보고 가는 막힌 놈’이라는 의미로 부족한 남자를 가리킨 것이다.

경청 화상도 “역시 형편없는 놈, 초리한 草裏漢이군” 이렇게 평하고 있다. 즉 학인은 자신이 불법의 대의를 체득할 수 있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만하고 있지만, 경청 화상의 눈에는 번뇌 망념의 차별심과 분별심에 떨어져 ‘풀밭에서 헤매는 안목이 없는 형편없는 자’라는 나무람이다. 즉 졸탁동시의 인연과 기회를 만들기엔 아직 거리가 먼 자로, 드러내놓고 깨달음을 체득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추구하고 있지만, 안으로는 불법수행의 안목

이 전혀 구축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근기가 익지 않은 놈이라고 꾸짖는 말이다.

圓悟도 ‘평창’에서 鏡淸 화상이 주장하는 ‘줄탁동시’의 공안을 적당히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 공안을 읽는 수행자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남원⁸⁾ 화상의 선문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남원 화상이 대중에게 범문하였다. ‘여러 총림의 남자들이 줄탁동시의 안목은 갖추었는지 모르나, 줄탁동시의 작용은 갖추지 못하였다.’라고 하자, 어떤 스님이 나와서 질문하였다. ‘무엇이 줄탁동시의 작용입니까?’ 남원 화상이 말하기를 ‘작가 선지식이라면 줄탁을 하지 않는다. 줄탁을 하게 되면 동시에 죽게 된다.’라고 하였다.”

남원 화상이 제시하고 있는 줄탁동시의 안목과 작용에 대한 범문을 잘 음미하고 사유하여 불법의 대의를 체득해야 경청 화상의 범문을 소화할 수 있다. 작가는 生死大事의 本分事를 體得한 선승인데, 그러한 선승은 줄탁 같은 쓸데없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줄탁과 같이 조작과 작위성에 떨어진 행위는 이미 줄탁의 선기(禪機 : 지혜작용)를 상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병아리가 안에서 쪼고, 어미닭이 밖에서 쪼는 것을 형용하며 말하는 줄탁동시의 작용은 電光石火와 같아서 의식적인 분별의 여지가 없는 세계이다. 그런데 본칙에서 “학인이 안에서 쪼면, 화상은 밖에서 쪼아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조작과 의식적인 줄탁동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줄탁동시의 문답은 벌써 줄탁동시의 안목이 아니며, 지혜

작용인 禪機도 죽은 것이다. 그래서 남원 화상은 作家 善知識은 분별과 의식으로 조작된 줄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雪竇和尚⁹⁾이 다음과 같이 계송을 읊고 있다. “鏡淸古佛은 줄탁동시의 가풍이 있네. 선문답으로 종지를 擧揚할 때에 반드시 학인의 잘못됨을 완전히 벗기고 드러내어 本來面目을 체득하도록 한다네.” 또 경청 화상의 줄탁동시 범문은 어미닭이 병아리가 달걀 속에서 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병아리도 어미닭이 껍질을 쪼아줄 것을 알고서 쪼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새끼와 어미가 서로 모르는데, 누가 동시에 줄탁 할 수 있으랴!”라고 읊고 있다. 어미닭과 병아리가 모두 무심의 경지에서 줄탁이 동시에 작용하여 근기가 서로 익어 상응하여야지만 묘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분별 의식으로는 줄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 參

〈 다음호에 계속 〉

8) 南院慧開(860~930), 唐末五代の 임제종스님. 興化存獎에게 법을 이어받은 임제종 3세. 하남성 汝州 寶應院에 머물며 종풍을 널리 선양하고 風穴延沼에게 법을 전하였다.

9) 雪竇重顯(980~1052), 宋代 운문종의 중흥조. 절강성 설두산에 주석하며 30년간 70명의 제자를 양성. 『傳燈錄』의 古則 100여개를 뽑아 頌古를 지어 『雪竇頌古』라고 하였다. 이에 圓悟頌古가 평창 과 착어를 붙인 것이 『碧巖集』이다.



사집반 스님들

사집반 스님들

너무너무 힘든 치문반이었고,
또 농사짓느라 힘들었죠.
그래도 밭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어서
가슴이 후련했죠.

어쨌든 수행자의 첫 입문이니까 잘 견뎌야 했고,
그래도 사집반들은 대체적으로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채소 장사도 못해서 반돈을 벌지 못했으니 좀 바보인가?)

앞으로 사교반 올라가면 더 열심히 살고,
옛날에는 능엄 장애가 있다 해서(대승비장秘藏경전이라고)
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요즘은 여럿이 합심 원력으로 사니까
모두 무장애로 마칩니다.

사교에 올라감을 부처님께 축원드리고 감사합니다.

홍륜 드림 ७

*이 글은 2011년 사집반 스님 자비도량참법 기도 때, 학장스님께서 보시금 봉투에 써 주신 글입니다.
어른스님께서 학인을 생각하시는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이 전해지는 글이기에 살포시 옮겨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보시

진광 / 운문사승가대학 학감

술술 길을 걷습니다. 깊은 상처의 흔적들,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은 아픔이 있습니다. 소나무마다 V자로 깊게 파여진 상처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 상처 없는 삶이 어디 있겠는지요. 상처 없이 어찌 봄이 오고 상처 없이 어찌 사랑이 움트겠는지요. 상처는 스스로 치유될 수 없고 타자로부터 치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상처도 서로 치유해주면서 치유될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름문에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겨울 호거산의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구고 가볍게 온 몸으로 찬 겨울바람을 견디고 있습니다. 저 찬 빈산에 겨울나무를 보노라면 서릿발같이 청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밥이 아니라 법을 위해서, 돈이 아니라 도를 위해서 산속에서 수행하는 칼칼하고 외로운 선승의 모습을!

이 추운 겨울 찬바람 소리 웅웅거리며 방문을 흔듭니다. 가난한 우리 이웃들의 아픔과 상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몇 해 전 휴식년에 미얀마 숲 속에서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작지만, 정성이 담긴 가장 아름답고 순정한 보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작지만, 진심을 담은 보시를 꼭 실천하리라! 귀국하여 운문사에 돌아온 후 처음으로 부처님의 흑백 사진 한 장과 아름다운 장미꽃 한 송이씩을 대중스님들께 올렸습니다. 그 후 정해놓고 대중스님들과 불교단체 몇 군데에 조금씩 보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는 무엇을 보시할까 생각하면서 기쁘고, 보시하는 순간과 후에도 한없이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어찌 보면 보시 받는 그들보다 내가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수행자의 삶은 손해 보면서 사는 거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보살행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익을 보면서 다른 이를 이익 되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사는 늘 상대적이어서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손해가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이익임을 때때로 느끼곤 합니다. 베풀고 나눌 수 있어 행복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진심으로 나누는 보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을 베푸는 보시는 재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없어도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이에게 베풀 수 있는 보시가 있습니다.

얼굴에 항상 온화한 빛을 띄우고 밝은 표정으로 상대를 대하는 보시입니다. 환하고 밝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 자신도 좋고 상대방도 기뻐할 것입니다. 자비롭고 미소 띠는 얼굴은 남을 기분 좋게 하고 마음을 밝

게 만들어주기에 선한 일을 한 것과 같습니다.

말을 할 때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로 남을 대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했지요. 사랑과 칭찬의 말, 위로와 격려가 담긴 말, 양보의 말, 친절의 말로 부드럽게 말하면 그 사람은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여 친절은 더 큰 친절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또는 친한 사람이거나 간에 차별하지 않고 언제나 마음의 벽을 허물고 문을 활짝 여는 것도 보시입니다. 마음을 좁게 쓰면 바늘구멍도 용납하지 않지만, 마음을 넓게 열면 온 우주 법계를 다 포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따뜻하고 선하게 대하면 상대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따뜻하고 선한 마음은 마음도 몸도 따뜻하게 해줍니다.

눈에 호의를 담고 웃음 띤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도 보시입니다. 상대는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며 동의해주는 눈빛은 상대방과 나를 더 가깝게 해줍니다. 그래서 웃음 띤 선한 눈빛도 보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몰라 헤맨 때 길을 가르쳐 주거나, 힘이 부족하여 무거운 짐을 홀로 들지 못하여 도움을 요청할 때 짐을 들어주고, 일손이 부족할 때 일을 함께 거들어주는 것, 또는 사람들에게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몸가짐으로 남을 도왔을 때 상대는 오래도록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리를 남에게 양보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는 편안히 앉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리든 언제든 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자리도 비울 수 있습니다.

남에게 깨끗하고 편안히 쉴 처소를 제공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그들은 안락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든 하룻밤을 내 집에서 편안히 머물다 가게 하면 그들은 오래오래 그 하룻밤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는 굳이 묻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살피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그들은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받았다고 느끼며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재물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일곱 가지 보시인 무재칠시無財七施입니다. 화안시和顔施, 언사시言辭施, 심시心施, 안시眼施, 신시身施, 상좌시床座施, 망사시房舍施 또는 찰시察施입니다.

이른 새벽 눈을 떠보니 하얀 쌀밥 눈이 소복이 내렸습니다. 그렇게 맑고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얼굴로, 말로, 마음으로, 눈으로, 몸으로, 내 곁에 있는 이들과 진심으로 행하는 보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의 허물이 보이면 내 허물 먼저 돌아보아 고쳐나가고, 남의 앞에 나서기보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순간순간 충실하고자 합니다. ॥

역경에서 피어난 뉴요커들의 약사여래불

운성 / 국제불교학교 2학년



비행기 창을 올리니 아스라이 허드슨 강을 중심으로 맨해튼Manhattan이 펼쳐진다. 미국인들조차 평생을 두고 가보고 싶어 한다는 설렘의 도시. 수도이면서도 고요하던 워싱턴DC와는 사뭇 다른, '뉴욕에 없으면 어디에도 없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사회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미국 내에서도 가장 인구 밀도, 수입, 문화수준이 높다고 평가되곤 하는, 이른바 Melting-Pot(다양한 문화들이 한데 녹아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가는 용광로), 여기는 뉴욕의 하늘 위!

그러나 한때 세계자본의 흐름을 주름잡던 화려한 빌딩 숲 사이를 도반들과 걸으며, 왜 내겐 9·11사건 때 깊은 상흔을 끼안고 무너진 세계무역센터의 험악한 잔재 언저리에 숨어 있는 아직 멈출 수 없는 애절한 호느낌이 들려왔던 것일까? 빈곤과 차별 속에서도 곳곳이 제자리를 찾아낸 저 까만 보석(흑인)들의 성소 '할렘Harlem' 거리와, 박물관 속에 박제된 듯 말라 붙어버린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눈물'이 여전히 공존하지만, 세계인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리라는 의지의 횃불을 든 채 오늘도 저 자유의 여신상은 차가운 대서양 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아이러니의 도시. 다양성이 녹아내려 새로운 차원을 창조해 내는 작업은 복잡다단한 논란거리를 낳지만, 그래서 더 의미 있고 자유로우며 또 아름답다. 미국 동부의 여느 도시보다 열린 자세로 세상의 고뇌들을 껴안고 함께 토론하고 행동할 줄 아는, 매력적인 뉴요커new yorker들이 만들어가는 이 또 다른 세상에 고요히 착지하는 새벽녘.

마중 나와 주신 불광선원 스님들의 자상하신 안내를 받으

며 조지 워싱턴 다리를 건너, 독립전쟁 당시 미국 초대 대통령이 사령부로 쓰던
태관의 불광선원佛光禪院에 드디어 도착했다. 처음엔 무성한 잡초와 집채만 한
쓰레기투성이였으나, 1996년 10월 첫 개원법회 이후 끊임없는 기도와 연령 계층
별 주말법회, 한글과 전통문화의 맛을 알리는 불광 문화학교, 미국인 참선법회,
또한 비교종교학 강의 등 인종과 종교색에 머물지 않는 진정한 국제포교를 실천
하여 미국포교의 모델로 우뚝 선 도량.

염불음성만큼이나 시원하고 통 큰 안목으로 고정된 틀을 깬 사찰운영을 하
고, 장학회를 결성해 타국에
서 고생하는 유학생 불자와
스님들을 묵묵히 키워 오신
큰 뜻대로, 머무는 내내 여러
모로 폐를 끼친 우리를 “중
은 다 한가족이야.” 하시며
살뜰히 챙겨주시던 아버지
같으신, 이제 첫 조계종 해외
특별교구장으로서 한국불교
세계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계신 주지 휘광 스님. 그 뒤
를 이어 미국과 한국을 넘나
들며 이 시대 젊은이들의 멘토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햄프셔 대학 교수이자
불광선원 부주지 혜민 스님과의 대화시간. 그리고 불광선원의 오늘을 만들어 낸
수많은 드러나지 않는 주인공 대중스님들의 끊임지 않는 발걸음, 도량 구석구석
에 깃든 깊고 너른 원력의 빛 찬란하다.



「뉴욕타임즈」에서 이미 앞으로 미국불교의 성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내다
본 바 있는 뉴욕 근교 캐츠킬산(Mt. Catskill), 이곳에 아름다운 한국전통 목조법당
과 적멸보궁을 갖춘 백림사가 있다. 1984년 창건한 이래 방함록에까지 올린 선원
을 운영하고 차와 동양 선서화 전시회로 한국문화의 여백과 기백의 미를 전하고
계신 주지 혜성 스님. 잘 지어놓고도 내용을 채울 인제가 없어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와서 살기를 발원하며 사셨다고 온갖 간식거리를 두 손이 모자랄 만큼 쥐여
주시는, 야인 같은 털모자 속 하얀 입김 내뿜으며 손 흔들어주시는 스님의 웃음이
십대 소년인 듯 맑으시다.

아름다운 호수길 지나 드러나는 흰칠한 원각사 도량엔 마침 한 교민불자 할
머니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49제 소대의식이 한창이었다. 1974년 승산 스님이 창

건하신 이래 통도사 정우 스님과 현재 주지 지광 스님의 원력에 힘입어 대작불사를 진행 중인 이 도량은 묵묵히 실천하시는 스님께 감화된 많은 불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정진 공동체의 장이 되길 바라신다는 스님의 잔잔하신 음성. 연등빛으로 염색(?)하신 청동부처님 존안 위로 구름 한 점이 없다. 원각圓覺의 자리인가! 그곳에서 우린 무엇이든 다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동고동락해 주는 불자님들의 이름을 몇들어진 서예체로 빼곡히 써내리신 용상방에서 주지 서천 스님의 섬세한 배려가 돋보이던 뉴욕 근교 롱아일랜드의 마하선원. 갑작스런 불청객들에게 저녁공양까지 대접해 주신 스님, 허나 그 누비적삼의 낡고 닳음은 당신의 삶인 듯 몽클한 그 무엇을 오래 남긴다.

30여 분쯤 더 달려가 만나 뵈는 비구니스님들이 운영하시는 청아사. 교민가족의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고 모국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켜 주고자 어린이 법회 및 템플스테이, 또 빠듯한 살림에도 교민 2세 청소년들의 한국문화 연수 시 항상 공항까지 배웅하며 어깨에 힘 실어주고자 용돈까지 챙겨주며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오신, 어머니 같은 포교를 해오고 계신 두 스님. 우릴 위해 차려주신 다과상에 스민 정갈한 손길만큼이나 자꾸만 뒤돌아보게 되던 미소, 그대로 기록하신 공양구셨다!

이 외에도 한국불교대학 관음사, 한마음선원, 조계사, 연곡사, 원적사, 보리사, 정명사 등 빠듯한 일정 속에 미처 다 돌아보지 못해 아쉬웠던 많은 한국사찰들을 뒤로 하고, 이제 돌아온 슬리핑백 속 노곤한 꿈 하나. 반평생을 바치신 미국포교의 노하우를 가만 앉아서 공짜로 묻고 있는 필자의 우문에, 한결같이 먼저 ‘웃음’을 보여주시던 스님들의 얼굴, 아련하다. 바닥을 치는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이 길이 아니면 다시는 없다.’라는 깊은 신심! 그래서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고, 그 누구라도 그 무엇이랴도 껴안아 낼 수 있으셨던 게 아닐까. 긴 세월을 하루같이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스님들의 저 새벽 “약사여래불” 정근의 울림은, 자신을 잃고 방황하는 뉴요커들, 나아가 우주법계 만중생들의 새 아침을 오늘도 환히 환히 밝혀간다. ॥

가륜빈가의 음성

蓋聞 生死路暗 憑 佛燭而可明 苦海波深 仗 法船而可渡 四生六道 迷真則 似蟻還 들
 개문 생사로암 빙 불촉이가명 고헤파심 장 법선이가도 사생육도 미진즉 사의순환 자옴
 八難三途 恣情則 如蠶處繭 傷嗟生死 從古至今 未悟心源 那能免矣 사의 길이
 팔난삼도 자정즉 여잡처건 상차생사 종고지금 미오심원 나능면의 어두워 부처
 非憑佛力 難可超昇 今則 天風肅靜 白日明明 專列香花 以伸迎請 님 광명을 의지
 비빙불력 난가초승 금즉 천풍숙정 백일명명 전열향화 이신영청 고헤의 파도가 험난하
 南無 一心奉請 大聖引路王菩薩摩訶薩 右伏以 一靈不昧 님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무 일심봉청 대성인로왕보살마하살 우복이 일령불매 사생육도의 중생이 진리에 미
 八識分明 歸屈道場 鏡露功德 障免宿債 應念頓消 해매고, 팔난삼도의 생명이 망정에
 팔식분명 귀계도랑 영침공덕 진원숙채 응념돈소 고달림으로 누에가 고치 속에 갇히듯
 正覺菩提 隨心便證 謹疏。維歲次 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그칠 줄 모르오니
 정각보리 수심변증 근소 유세차 마음의 근원을 깨닫지 못하고서야 어찌 면
 佛紀 2557年 正月 20日 극락을 발원코자 법석을 마련하옵고 향과 꽃, 과일
 불기 2557년 정월 20일 등 공양구를 장만하여 대성인로왕보살마하살님을 청하
 乘法沙門 映祚謹疏 하시어 이 공덕을 굿어 감응하시와 영가의 앞길을 밝게 인
 병법사문 영조근소 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생각 어둡지 않고, 팔식이 분명
 하여 부처님의 품 안에서 풍성한 공덕 누리고, 목은 업장 지닌 빛 묘
 두 소멸하여 정각보리의 법을 깨달아 무생법안을 얻도록 힘을 배풀어 주옵소서.
 세월이 흘러 불기 2557년 정월 스무날에 예식을 행하는 출가승려 영조 삼가 올립니다.

— 시련侍輩 中 대령소對靈疏 —

* 대령소對靈疏란 - 대령對靈이란 천도의식 전에 영가가 불단에 이르기에 앞서 영혼에게 법식法食을 베푸는 의식이다. 위의 대령소對靈疏는 영가에게 법식을 베풀기 전에 영혼이 의지해야 할 아이타불·관세음보살·대세지보살·인로왕보살 등을 모신 뒤 대령의 취지를 아뢰는 내용이다. 편계성偏啓聲으로 소리 지으며 그 음성이 간절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머리를 숙이게 한다.



담과 소, 그리고 내비게이션

선업 / 팜행복 차담명상원 원장

“스님, 오신 분들과 차 한잔 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이야기를 따발총 쏘듯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경우는 동문서답이고 어떤 경우는 ‘그게 아니지요.’ 를 연발하는 통에 거의 싸우기 직전까지 갔고요. 그러다 보니 도대체 무슨 이야긴지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내비게이션이라도 달아야지.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칠 전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일이 쉽지 않다며 소통적 대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지인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차담명상 기법 중 하나인 ‘담소내비’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소내비’라는 용어는 담과 소와 내비게이션을 합쳐서 만든 말로 심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내담자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말합니다.

먼저 ‘담談’은 이야기를 뜻하는데 보통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살아온 모든 흔적인 지금의 내 삶 전체를 일컫는 경우입니다. 영어로는 Story라고 하는데 ‘내 삶’이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 기억하든 하지 못하든 체득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맥락, 핵심, 그리고 각본으로서의 이야기입니다. Narrative로 불리는 것으로, 보고 듣고 맛보는 과정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판단하고 처리하는 자기만의 방식을 말합니다. 습관에 의해 형성된 성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맥락적 이야기 탓입니다. 세 번째는 대화 또는 대담으로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Dialogue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맥락적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누군가로부터 “넌 안 돼.”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을 경우 우리는 그 말을 토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난 안 돼.’로 쓰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어, 어릴 적 훈련으로 자그마한 나뭇가지에 묶여서도 움푹달짝 못하는 코끼리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담자 또는 방문한 이들의 맥락적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다면 손쉽게 상대방이 걸려 있는 이야기를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대안적인 이야기로 삶의 일기장을 다시 쓰게 해 주는 것이 ‘바른 이야기’인 정담正談 즉 정어正語를 실천하는 부처님 제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소笑’는 웃음을 뜻하며 대화의 효과를 의미합니다. ‘웃음으로 시작하는 하루’라는 글에

보면, “우리말 ‘웃음’은 ‘우(위)+숨’으로 분석이 가능하고 ‘기분이 업그레이드된 숨’의 의미에서 ‘웃숨’을 ‘웃음’으로 표현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보태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기분이 좋아 ‘기를 뿜음’이 기쁨이니 ‘삶의 기쁨에서 내쉬는 숨’이 바로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웃음의 종류는 이야기의 효과와 관련이 큼니다. 속이 풀리는 긍정적인 대화 상황에서는 손뼉 치며 크게 웃는 박장대소拍掌大笑,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여 크게 웃는 과안대소破顔大笑, 겹겹대며 웃는 가가대소呵呵大笑, 하늘을 우러러보며 크게 웃는 앙천대소仰天大笑,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흥소哄笑, 소리를 내지 않고 빙긋이 웃는 미소微笑 등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속이 불편한 부정적인 대화가 계속되면 쓴웃음인 고소苦笑, 코웃음인 비소鼻笑, 티무니없거나 갈잡아서 웃는 가소可笑, 거짓 웃음인 가소假笑, 가벼이 생각하여 웃는 경소輕笑, 독기를 품고 웃는 독소毒笑,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면서 웃는 냉소冷笑, 조롱하면서 웃는 조소嘲笑, 비웃음인 비소誹笑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에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이란 하늘에 떠 있는 GPS 위성의 신호를 이용하여 현재 사용자의 위치를 계산해 주는 위성항법시스템으로 처음 가보는 곳도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도로 상태를 고려하여 우회도로까지도 안내하여 목적지에 잘 도착하게 해 줍니다.

대화 중에 말 길을 잃게 되면 ‘이야기’는 산으로 가게 되고 ‘미소’는 실종이 됩니다. 「전도 선언」에 보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뜻과 문장이 훌륭한 법을 설하라.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역 표현인 의문구족義文具足이 마음에 들어 반복적으로 되뇌이며 답소 중에 나침반으로 삼아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차리곤 합니다.

『상웃따니까야』에 보면 ‘법은 계행이라는 여울을 가진 호수’라는 표현이 나오고 ‘지혜의 달인들은 거기서 목욕하여 물들지 않은’ 참된 사람들로 그들이 모인 곳이 ‘집회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이 터져 온 내담자나 도반을 위해 계행에 기초한 법의 호수에서 물을 길어 ‘집회소’에서 차를 달이고 차담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조리를 잃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문제점은 녹여 내고 해결책은 제시하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법을 통해 아픈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불교적 심리치유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속에 이야기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내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하다 보면 어느덧 서로 미소를 짓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담’과 ‘소’와 ‘내비’가 조화를 이룬 바로 이 순간, 모든 맺힌 이야기가 풀려 마음속 항아리에 담긴 부정적 이야기는 어느덧 대안적 이야기로 바뀌고 아픈 이들의 삶은 지극한 행복으로 물들게 됩니다. ☸



선업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심리전문가(자격번호 A9-2555-0002), 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 말행복 차담명상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상담 이외에도 헬빙에서 웰다잉까지 지혜를 함께 나누는 교육도 진행한다. 또한, 다양한 명상기법을 활용한 마음치료기법 개발에 힘써오고 있으며, 근래에는 차를 매개로 활용하여 상담받는 사람들의 내면을 치유하는 ‘차담명상’을 개발해 보급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불교방송 「우리는 도반입니다」에서 행복한 인간관계 증진에 대한 해법을 전하는 인기진행자이자 사랑전문 상담가로 종교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공감과 파장을 일으킨 바가 있으며 현재 차담명상, 休명상 교실 등을 진행하면서 도시인들의 ‘스트레스 제로’ 운동을 이끌고 있다.

천년 역사와 숨결의 보고, 팔만대장경

성안 /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 보존국장



고요함과 적막함……. 산중의 사찰이라면 가지고 있는 단어. 그러나 이 두 단어뿐만 아니라 세계 유일하게 어느 사찰보다 푸르른 기상과 신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곳, 팔만대장경이 있는 장경관전이 그곳이다. 장경관전을 보고 있으면 그 모습만으로도 엄숙함과 장엄함이 전해지지만 관전 안에 들어가 대장경판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있으면 경판을 만드는 데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숨결과 신비한 에너지가 느껴진다.

팔만대장경판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아시아사회에서 13세기 중엽 이래 현재까지 국보급 문화유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되어 지구촌 인류들의 보편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팔만대장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거란족이 두 번째 쳐들어왔을 당시 전라남도 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된 현종은 신하들과 함께 초조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다. 대장경을 만들어 가면 갈수록 신기하게도 거란족과 화의和議(친하게 지내기 위해 의견이나 논의를 나누는 것)를 맺게 되어 거란족이 물러간 일을 두고 사람들은 부처의 도움으로 평화가 찾아왔다고 믿었다. 그러던 중 몽골의 침입으로 대구 부인사에 보관하고 있던 초조대장경의 판목이 불에 타 버리자 고려 조정은 민심을 모아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쳐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다.

판목은 가로 2자, 세로 8치, 두께 1치 2~3푼으로 자른 후 양쪽 끝에는 뒤틀리지 않게 각목을 붙인 다음 네 귀퉁이는 구리로 장식했다. 경판의 각 면은 대개 23행으로 1행마다 14자로 판목 양면에 글자를 새겨 넣었다. 이 작업을 위해 필사자와 각수 등은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뭉클해진다. 당시 대장경으로 인쇄된 경전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지만 대장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전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경판은 고종 38년(1251) 9월 조성사업이 일단락된 당시부터 충숙왕 2(1315)~5년까지 강화경江華京(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 도성의 서문 밖에 축조된 대장경판당大藏經板堂에 봉안되어 있었다. 강화도 대장경판



당에 봉안된 경판이 어느 시기에 해인사로 옮겨 봉안되었는지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제시대 이래 현재까지 역사학·불교학·서지학 등 여러 영역의 전문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가장 신빙성이 있는 시기를 살펴보면, 조선 태조 때라고 이해하나, 상당수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충숙왕 5년부터 우왕 7년(1381) 사이가 가장 객관성을 가진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신록사에 봉안되어 있다가 조선 태종 14년(1414) 7월 임오일(11일) 일본 국왕에게 선물로 보내진 이후, 현재 일본의 오타니대학(大谷大學) 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다는 인경본에서 확인된다. 이 인경본은 '송나옹제자인대장해인사送懶翁弟子印大藏海印寺'라는 시 가운데 '가야산 해인사에서 전체 대장경을 인정하다(伽倻海印印全藏)'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듯이, 우왕 7년 당시 이미 해인사에 팔만대장경판 전체가 봉안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많은 사찰 가운데 왜 하필 해인사였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그 의문을 풀어보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해인사의 지리적 환경이 봉안의 지속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해인사가 고려 시대의 역대실록 등 국가의 중요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조건과 역량을 갖추는 등 국가 중요 자료에 대한 보존 역량 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해인사는 고려 예종 때 혜조국사慧照國師가 구해 온 『단본대장경丹本大藏經』 인경본을 13세기 말기까지 보관하는 등 팔만대장경판의 조성사업과 관련된 교열 저본을 보존하고 교학 연구를 수행할 조건과 역량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인사가 경판을 조성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해인사에서는 선종 6년(1089) 2월 『천태사교의天台四教儀』를 다시 간행하고, 고종 23년(1236) 6월 해인사 소속의 각수 대승大升이 『불설범석사천왕다라니경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해인사 소장본)을 판각하였으며, 충혜왕 원년(1331) 12월 판각된 『삼십팔분공덕소경三十八分功德疏經』(국보 제206-11호)의 조성에도 해인사 전주典柱인 체원體元이 전문 필사자로 참여하는 등 11세기부터 14세기 중엽까지 해인사가 경판의 판각을 위한 기반 시설이나 그 인력을 상당히 갖추고 있었다. 특히 판각을 위한 기반과 역량은 팔만대장경판의 이난 이후 훼손된 경판의 보완을 위한 현실적인 조건이 되기도 하였다.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의 장경관전은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경관을 오랫동안 흠 없이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해충과 습도로부터 경관을 보호하여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통풍이 잘되게 해주는 것이다. 경관나무는 공기 중의 수분과 끊임없는 소통을 한다. 공기가 습하면 수분을 빨아들이고 반대로 건조하면 수분을 내놓는다. 이런 과정은 공기습도와 온도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반복하다 보면 계절별로 경관이 갖는 함수율은 대체로 일정해지는데, 이것을 평형함수율이라 부른다. 해인사 일대의 연간 평형함수율은 15~16%이며 경관은 이 함수율에 거의 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함수율을 유지할 수 있는 곳으로 해인사의 가장 위쪽, 서남향의 양지 바른 곳에 관전이 자리 잡도록 설계되었다.

장경관전의 내부 바닥은 흙바닥이며, 경관꽃이를 관전의 길이 방향과 같이 설치하고 적당한 공간을 두어 상하 좌우의 공기 흐름이 원활하도록 고안했다. 건물 바깥벽에 설치한 불박이 살창 역시 관전 안의 공기 흐름을 배려한 설계이다. 벽면의 아래와 위, 건물의 앞면과 뒷면의 살창 크기를 달리하여 대류 현상을 이용하는 절묘한 기술을 발휘했다. 건물의 앞면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중방中枋을 걸치고 불박이 살창을 아래위로 설치했다. 수다라장과 범보전의 살창 모양은 비슷하나 크기가 약간씩 다르다. 수다라장의 경우 앞 벽면의 창 크기는 아래 창이 위 창보다 약 4배 정도, 뒤 벽면은 위 창이 아래 창보다 1.5배 정도 더 크다. 범



보전은 앞 벽면은 아래 창이 위 창보다 약 4.6배 정도, 뒤 벽면은 위 창이 아래 창보다 1.5배 크다. 관전의 앞과 뒤 그리고 아래와 위의 창 크기를 왜 달리했을까?

여기에는 자연대류를 생각한 선조들의 과학이 숨어 있다. 수다라장과 범보전은 모두 30칸 195평, 동·서사간전은 모두 3칸 17평의 장방형 목조 건물이다. 건물은 가야산 정상인 두리봉을 뒤로 하고 깃대봉, 단지봉, 오봉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앞에는 비봉산을 마주 보고 있다. 관전 건물 자리는 645m

이고 기본 방향은 서남향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관전은 남향 건물로서 앞쪽보다 뒤쪽의 온도가 낮고 공중 습도가 높다. 공기의 이동은 관전 건물 뒷면의 살창으로 들어와 관전 속에 머물다가 빠져나갈 때는 앞으로 나가기 마련이다. 관전으로 공기가 들어갈 때 습한 공기는 아래에 처져 있으므로 위 창보다 아래 창을 약간 작게 하여 습한 공기가 적게 들어가게 설계했다. 그러나 바깥 공기는 건물 높이 4m 정도에서는 아래 위 습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므로 살창은 1.5배 정도로 큰 차이는 두지 않았다. 관전 속에 들어간 공기는 경관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빼앗아 들어올 때보다 무거워지고 아래로 처진다. 이런 습한 공기는 앞면 살창을 통해 빨리 빠져나가 버릴 수 있도록 앞면 아래 창은 위 창보다 4배 이상 크게 만들었다. 반면에 건조하여 위로 올라간 공기는 오랫동안 관전 안에 머무를 수 있게 관전 앞면 위 창은 아주 작게 했다.

수다라장이나 범보전 둘 다 대장경관 보관을 목적으로 지었으므로 장식이 거의 없는 소박한 건물이다. 하지만 이렇게 장식이 없고 소박하지만, 장경관전에는 언제부터인지 모를 아름다운 꽃이 핀다. 이 꽃은 물이 없어도 태양만 있으면 아름다운 자태가 빛이 나며 많은 중생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 이 꽃은 부끄러움

이 많은지 일년에 두 번, 즉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과 추분에 가장 균형이 잡힌 완벽한 모습을 살포시 드러낸 후 감춘다. 연꽃은 진흙이나 더러운 물에서 자라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아름다운 꽃이다. 마치 부처님과 중생의 본성이 청정하여 세속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여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 되었다. 즉 연꽃이 주변을 정화시키듯이 부처님은 이 세상을 정화시키시며, 연꽃이 더러움 속에 있지만 더러움에 때문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도 그와 같다고 하여 소중히 여겨왔던 것이다. 연꽃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대개의 꽃들은 꽃이 피고 시들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열매를 맺는 데 반하여 이 연꽃은 열매와 꽃이 동시에 생긴다. 꽃이 맺힐 때 그 꽃이 피기 전에 이미 꽃 속에 열매가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불교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함께 존재하는 성불成佛의 이치와 같다고 보았다. 중생은 원인이요, 부처는 결과이다. 그런데 성불이란 중생 속에 이미 본래로 갖추어진 것을 확인하는 일이다.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일체중생一切衆生이 본래부터 모두 불성이 있다는 사상에서 볼 때 이 연꽃은 불교와 너무나도 닮았다. 이러한 상징의 연꽃이 관전이 시작되는 수다라장에 살포시 뜬다는 것은 현대문명과 천년의 문화재, 세간과 출세간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러한 천년의 숨결이 간직되어 있는 국보 제32호 해인사대장경판(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국보 제52호(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장경판전, 그리고 국보 제206호인 고려각판을 관리하는 해인사 대장경 보존국장으로 있으면서 현실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것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이다. 대장경을 보러 온 관광객 중에는 대장경 앞에서 대장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글자가 팔만 개인지, 목판이 팔만 개인지를 물으며 심지어 해인사에 있는 것이 진짜인지, 빨래판 같은 것이 많은데 뭐 하는 것이냐고 묻는 사람도 많다.

누구나 소중한 문화재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으면 그 문화재에 대해 애정을 갖고 보게 된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식이 없으면 감동이 덜한 것은 당연하다. 해인사 홍보관에 있는 홍보 영상물을 일본인 관광객들은 대부분 다 보는 반면, 한국인들은 많이 보지 않는다. 또한 문화재를 접한 외국인들은 찬탄의 말을 아끼지 않지만, 한국인들은 당연히 그곳에 있는 역사 속의 한 물건으로만 생각한다. 문화재는 종교를 초월해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의 총화고이며 민족적 자부심이다. 한 민족이 얼마만큼 발전했는지는 그 나라의 문화와 문화에 대한 업적을 보면 알 수 있다.

다행히도 현재 대장경의 보존을 위한 여러 학자들과 문화재청의 불사와 운동이 한창이다. 그런 가운데 운문사 사교반 스님들이 십시일반 모아 온 불사금이 얼마 전 도착했다. 대장경에 대한 학인들의 따뜻한 마음 감사드리며 이런 운동이 학자나 문화재청뿐만이 아닌 전 국민의 운동이 되기를 발원해 본다. ॥



성안 스님은 서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1992년에 졸업, 합천 해인사 1993년 입산, 합천 해인사승가대학 1998년 졸업, 봉암사, 송광사, 칠불사에서 5안거를 율행정진. 미얀마 뵘피따라마 수도원에서 1년간 비파사나 수행, 미국 University of the West의 대학원에서 종교학 석사학위 2012년 취득, 현 부산 동아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 박사과정 재학, 문화재청 고도보존과 3D 영상 자문위원으로 있다.

好事不如無

아무리 좋은 일도 없음만 못하다.

현사 / 사집과



불사수행佛事修行에 관하여

유진 / 사미니과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 자정기의自淨其意, 시제불교是諸佛教. 모든 악을 끊고 다시는 짓지 말라. 비록 작은 선일지라도 반드시 행하며 자신을 정화하고 그 뜻을 깨달아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것은 제가 미국 뉴욕에 있을 때 처음 절에 와서 들었던 법문입니다. 당시 제가 존경하던 스님께서는 항상 이 계송을 즐기시며 오는 신도님들에게 일러 주시면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이 네 마디에 다 들어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수행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항상 이야기하곤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몇 가지나 되는지 여기 계시는 대중 스님들께선 알고 계시는지요...? 통계학적으로 약 740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가? 하겠지만 생각해 보면 740여 방법보다 많을 것도 같습니다. 몇 날 며칠이 걸리겠지만 걸어서 가는 길도 있을 것이고 자가용이나 기차나 버스 또는 다른 곳을 둘러 가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빠른 길은 역시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가장 빠른 비행기가 있다고 해도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서울로 가겠다고 마음을 일으키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을 스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일으켜야만 서울이든 미국이든 어디든지 갈 수 있듯이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수행의 방법에 대해 다섯 가지 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참선수행參禪修行이요, 두 번째는 주력수행呪力修行이요, 세 번째는 염불수행念佛修行이요, 네 번째는 간경수행看經修行이요, 다섯 번째는 불사수행佛事修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저는 오늘 불사수행에 관하여 법문을 하려고 합니다. 불사佛事란 말 그대로 부처님의 일을 내가 해 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복밭을 가꾸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불자들을 일러 보리菩提(깨달음)를 가꾸는 농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밭이란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런 쓸모가 없지만 무엇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행복

해질 수 있듯이, 우리들의 마음도 그러한 밭과 같아서 닦고 수행하지 않으면 번뇌의 풀, 망상의 풀, 괴로움의 풀이 자라서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밭을 가꾸려면 어찌하여야 할까? 불사수행의 첫 번째는 경전불사敬田佛事입니다. 말 그대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잘 보살피 드리고 아랫사람은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며 나라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지를 묻기 전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모든 이(중생)들은 모두가 하나의 인연에서부터 출발한 이웃들이니 그 이웃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이 곧 경전불사입니다.

불사수행의 두 번째는 비전불사悲田佛事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고통 속에 헤매니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라는 서원을 세우셨듯이 이 세상의 약자弱者를 당연히 보살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일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약자弱者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홀아비, 과부, 고아, 장애인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 외에도 사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의 안내자가 되어주는 것, 즉 대자大慈보다는 대비大悲를 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신체적으로만 약자가 아닌 정신적으로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심리라는 분야가 발전하고 있고 또한 그곳을 찾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비전불사悲田佛事는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포교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사수행의 세 번째는 은전불사隱田佛事입니다. 예수님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지만, 부처님께서 그 행하는 일조차도 마음을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슨 일을 하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자비심으로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들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수행을 통해 배우고 익혀야 하며 중생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중생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나를, 스스로를 이기는 지름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수행을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적은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며, 게으름은 모든 선근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늘 깨어 있어라."라고 강조하셨고 이렇게 늘 깨어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곧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 들었던 위의 법문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가득히 들어 있어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차례법문의 자리에서 다시금 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고, 대중스님들과 함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어른스님의 법문을 나눌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리며 법문을 마칩니다. ॥

현대사회의 죽음 문제에 대한 불교적 이해와 고찰 2

현우 / 사교과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현대사회의 죽음 문제
 - 1) 뇌사
 - 2) 안락사/존엄사
 - 3) 자살
3. 불교에서 보는 인간 존재
4. 불교의 죽음 이해
5. 현대사회의 죽음 문제에 대한 불교적 고찰
 - 1) 뇌사 문제의 불교적 접근
 - 2) 안락사 / 존엄사 문제의 불교적 접근
 - 3) 자살 문제의 불교적 접근
6. 나오는 말

5. 현대사회의 죽음 문제에 대한 불교적 고찰

1) 뇌사문제의 불교적 접근

우리나라는 장기 기증자에 한해 뇌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에선 죽음이고 어떤 조건에서는 죽음이 아닐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일까. 불교학자들의 뇌사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뇌사를 죽음으로 보는 의견은 대체적으로 뇌에서 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뇌사의 순간에 이생에서의 윤회가 종식되는 걸로 본다. 극단적으로, 뇌사자의 장기를 누가 잘라간대도 그 일은 다음 생의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 이식이 가족이나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윤리적 문제가 없다.

반면, 뇌사를 죽음으로 보지 않는 견해는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인간존재의 근원적 정신인 아뢰야식이 떠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뇌사 상태의 장기 이식은 아뢰야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행해지게 된다. 범부인 중생이 아뢰야식 상태에서 자신의 장기가 해체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뇌사를 죽음으로 보는 의견이 과연 정직한 교리적 해석 위에서 이루어진 것일까. 뇌사를 찬성하는 불교학자의 의견대로 뇌사의 순간 존재 다발-오온五蘊 중 식온이 온전히 파괴되는 것이라면, 뇌사가 곧 죽음이고 이생에서의 윤회는 중지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남방 상좌부 불교에서는 생각의 일어남, 즉 식의 발생은 심장 근처에서 심장 토대 물질을 기반으로 일어난다. 육계와 색계 중생의 재생연결식도 심장에 의지하여 일어난다. 즉 심장이 뛰고 있고 심장 토대 물질이 존재하는 한, 남방 상좌부 불교의 관점에서는 식의 작용이 멈추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유식불교학자의 주장에서도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아뢰야식이 육체를 떠나지 않는다. 티벳 불교 역시 죽음 이후, 즉 심장이 멈춘 후에도 식이 완전히 육체로부터 분리될 때까지 3~4일이 걸린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곧 식온이 뇌에 의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불교 교리에 근거하고 있다기보다는 뇌를 사고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현대과학의 견해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불교적 관점에서 뇌사의 상태를 죽음이 완결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죽음이 시작되었을 뿐이지, 죽은 것은 아니다. 특히 식온과 색온의 결합이 온전히 해체되지 않았으므로 장기이식을 해도 좋을 정도로 죽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반면 뇌사에 대한 명시적 판단은 생략한 채 불살생 정신과 보시 정신으로 뇌사자의 장기 이식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사람에게 내 몸을 주는 것은 자살이라거나 살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뇌사자 대상의 이식 장기는 살아 있을 때는 분리가 금지된 장기이다. 사회적으로 처벌받는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뇌사 이전에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장기 이식에 동의했다면, 불교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처님이 전생에 살아 있는 몸을 보시했다는 전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장기를 보시하겠다는 결정이 뇌사에 대한 바른 이해에 근거했느냐이다. 비록 좋은 의도로 결정했을지라도 어리석음에 근거한 결정이라면 선한 과보를 불러오기 힘들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는 뇌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장기기증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안락사 / 존엄사 문제의 불교적 접근

불교적 관점에서 안락사를 반대하는 주장들은 주로 불살생계와 관련하여 불교의 생명 존중 정신을 강조한다. 불교에서는 직접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살 교사까지 바라이죄에 해당될 정도로 단호하게 금지된다.

안락사 논쟁은 안락사와 존엄사를 서로 혼용하거나 같은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더 혼돈스러운 면이 있다. 안락사에 찬성하는 불교학자들의 견해는 실제로 존엄사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불교 내의 안락사 논쟁 역시 생명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자기 선택을 우선시하는 주장과, 계율에 따르는 무조건적 생명존중의 정신이 대립하고 있다.

율장에 직접적으로 안락사의 예가 있다. 수행을 지나치게 열심히 한 결과 죽는 것이 낫겠다고 느낀 승려들의 부탁을 받고 미갈란디까(Migalandika)는 60여 명의 승려들의 목숨을 끊어주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부처님은 살생에 대한 바라이죄를 정하셨다. 다른 경우는 사형집행 장소로 가는 길에 범죄자의 신속한 처형을 호소했던 한 승려의 경우이다. 승려의 동기는 죄수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려는 선의였고,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앞당겼을 뿐이지만, 계율을 파기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⁹⁾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결과인 상황에서 선의로써 단지 조금 앞당겼을 경우에도 불교는 계율로써 금한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안락사도 불교는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된다.

9) 다미엔 키온, 해남결 옮김, 『불교와 생명윤리학』(불교시대사, 1995), p.286.

한편 불교에서 생명을 높게 평가하긴 하지만,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도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생명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을 가진 존재, 해탈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생사에서 벗어나 해탈한 아라한의 자살¹⁰⁾과 구도 과정에서 몸을 보시하는 행위를 부처님이 허용하고 행한 것을 그 근거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안락사를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생명 자체를 목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타인의 시도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미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부담되고 무익한 생명연장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불교적 관점에서 인정될 수 있다. 이생을 무의미하게 연장함으로써 윤회를 통해 다음 생에서 해탈을 추구할 기회를 지연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교적 관점에서 안락사를 반대한다면, 죽음을 선택할 정도의 고통을 덜어 줄 대안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안락사의 대안으로서 호스피스 간호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 줄 죽음준비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기론적으로 바르게 죽음을 이해하게 되면 죽어가는 과정이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의보다는 삶을 더 잘 살기 위해 죽음을 준비해 두는 쪽이, 독화살의 연원과 종류를 따지기보다 먼저 화살을 빼고 치료하는 쪽을 주장하는 불교에 더욱 적합한 대처방식일 것이다.

3) 자살문제의 불교적 접근

생명 존중이 근본인 불교에서 자살은 당연히 부정적인 행위지만,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경우처럼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살인이나 자살 교사를 한 자는 교단생활을 함께 할 수 없는 바라이죄이지만, 산에서 떨어져 자살을 시도한 비구에 대해서 참회함으로써 출세가 가능한 악작惡作에 해당된다고 한 예를 들어 자살 시도는 살인이나 자살 교사와는 다르게 취급했다고 보는 주장¹¹⁾이 있다.

불교가 자기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부정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는 업설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불교 업설은 인과응보의 교설로서 '선인선과 악인악과'의 인과법칙을 주장한다.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자유와 책임'의 원리로서 재해석될 수 있을 만큼¹²⁾ 업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근거한 행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책임도 당사자의 몫으로 남긴다.

자살은 결코 삶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불교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해결책이라면 괴로움이 줄도록 선업을 지어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법 제정,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자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제도적 방안도 필요하겠지만, 죽음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게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가능하다면 성교육처럼 죽음교육도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종단의 교육기관 등에 불교적 관점에서의 죽음교육을 포함시킴으로써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이다.

10) 이문성, 「자살에 대한 불교적 관점과 해결책」, 『심리연구』22(한국분석심리학회, 2007), p.2.

아라한의 자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질병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육신의 수명을 단절하는 것. 둘째, 차마 부처님의 입멸을 지켜볼 수 없어 부처님의 허락을 얻고 난 뒤 먼저 입멸하는 것이다.

11) 이문성, 위의 논문, p.2.

6. 나오는 말

현대사회에서는 무조건적인 생명 존중의 원칙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자본주의가 ‘인간을 기본적으로 고립되고 이기적인 존재라고 정의’¹³⁾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강화되면서 생명존중 원칙이 수정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안락사, 뇌사, 자살 등의 죽음 문제는 현대 자본주의의 고립된 인간관과 오랜 종교적 전통인 생명존중 정신의 대립이기도 하다.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한 자기 결정권은 계속 강화될 것이고 언젠가는 제한이 없는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사회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불교는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부정하지 않았다.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존중해야 하지만 자기 생명에 대해서는 해탈이라는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 결정권이 허용되기도 했다. 따라서 위의 문제들에 있어서도 자기 결정권과 생명 존중 사이의 첨예한 윤리적 대립으로 다루지 않고 좀 더 유연한 시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즉 불교가 해야 할 역할은, 고립되고 이기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업에 의해 연기되어 윤회하는, ‘나’라고 규정할 수 없는 존재들이 상호 연기되어 존재한다는 실상을 인식시키고, 그런 세계관 속에서 죽음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일일 것이다. ॥

12) 박경준, 「불교업설의 현대적 의의」, 『춘계학술대회 : 업과 윤회』(불교학 연구회, 2011), p.112.

“... 불교적 까르마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근거한 능동적·자율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자유’ 사상에 통하고, 업보는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책임’ 사상과 통한다.”

13) 박병기, 「안락사에 관한 윤리학적 쟁점들과 최근 동향」, 『불교와 문화』(대한불교진흥원, 2002), p.24.

감로비로 살아난 초심

원일 / 사미니과

인간의 역사는 소유사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다.
물건만으로 성에 차지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 법정 스님 「무소유」 中 -

작년 겨울, 어느 인터넷 매체에서 법정 스님 다비식 현장을 보게 되었다. 매마른 육신에 얹은 가사 한 장 덮인 채 수백 명의 사부대중 앞에서 세상을 떠나 먼 길 가시는 스님의 모습이 내 가슴을 울렸다.

2년 전 지체로운 삶으로 크게 일깨워준 법정 스님(1932~2010)은 무소유의 대명사로 불린다. 스님은 모든 현대인들의 귀감이 될 만한 어록과 깔끔한 문체로 필력을 날리며 많은 책을 출간하셨다. 위의 글귀 또한 끊임없이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이 시대를 이끌어준 가르침이기에 내겐 더욱더 간절하게 다가왔다. 스님은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지은 허물은 생사를 넘어 참회할 것입니다. 이제 시간과 공간을 버려야겠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세수 79세 법랍 55세로 입적하셨다.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무소유에 대한 약속을 놓지 않으셨다.

위의 글귀에서는 역사가 되어 버릴 만큼 소유가 익어진 현재 “소유”라는 탐욕에서 한걸음 물러나고 자 하는 스님의 바람을 볼 수 있다. 21세기, 급격한 성장과 발달로 이제 손가락 하나로 세계를 넘나드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나보단 여러 개를, 취하면 취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듯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점점 많은 것을 갖게 되면서 시작된 인간의 삶은 물질 만능주의로 이어져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경쟁, 재산, 경제, 투자 등이 키워드가 되는 오늘날 작은 것에 만족하라는 스님의 말씀이 우이독경牛耳讀經이 될 수 있는 것도 그 현실이다. 우리들의 소유관념이 때로는 우리 눈을 멀게 한다.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돌아보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탐심에 끌려 허비했는지를…….

이러한 사회를 깨우쳐 주는 스님의 자비는 다른 글귀에서도 느낄 수 있다.

“내가 아마도 욕심이 많기 때문에 무소유를 그렇게 강조하게 된 듯하다. 지금도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이다.”

홀로 작은 오두막 생활을 하던 어느 때 하신 말씀이다. 산속에 계셨지만, 결코 홀로 살지 않으셨고, 스님의 간소한 삶은 결코 문자에만 지나지 않았음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 또한 타종교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넓고 큰 불심을 퍼신 스님, 세계종교 화합을 꿈꾸는 나로서는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무소유를 말씀하신 스님의 글 속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며 또한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복잡하고 답답한 현실에 때로는 심오한 불법이 어렵게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범정 스님의 맑은 글을 보고 있으면 거듭 발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 시대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범정 스님의 거룩한 삶을 접하고 나서는 시든 새싹이 시원한 단비를 맞은 것처럼 다시금 신심을 내어 초심을 새겨본다.

화향천리행花香千里行 꽃향기는 천 리를 간다지만
인덕만년훈人德萬年薰 사람의 덕은 만년 동안 훈훈하다.

한마음이 맑아지면 그 둘레 전체가 맑아지듯, 산에 들어와 나무를 빛나게 하고 자연의 숲을 빛나게 하신 맑고 향기로운 범정 스님의 향기는 굳이 알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수없이 많은 세월을 거슬러 사람들 가슴에 잔잔하고 따뜻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오늘 하루, 부처님을 비롯한 옛 선사님 그리고 많은 큰스님의 가르침이 목마른 이에게 감로비가 되어 내리기를 기도한다. 爲

알에서 깨어나기

덕해 / 대교과



“왜 출가했어요?” 스님들이 받는 질문을 조사한다면 이 질문이 단연 1위를 할 것이다. 어떤 보살님들은 조심스럽게 물어오고, 택시기사님들은 일상적으로 묻고, 어떤 신도님들은 강한 호기심으로 묻는다. “왜 출가했어요?”

처음 노스님을 찾아뵈었을 때 노스님께서도 ‘왜 출가하려 하느냐?’고 물으셨다.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애인과 헤어져서 출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확답을 드렸다. 그 후로도 신도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그때마다 곤란해하기보다는 간단히 ‘성철 큰스님의 책을 보고 오게 되었다.’고 미리 답을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친한 지인이 와서 물었을 때는 선방 스님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확신에 출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불교를 아예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대학 졸업 후 출가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또 아니었다. 그럼에도 ‘출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과 달리 2년 후 출가를 단행했을 때, 가장 결정적 동기는 그 사람의 자살이었다.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친절하고 맑고 선량한 사람이었다. 딱 한 눈에 봐도 선량한 사람 말이다.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본 것은 신입생 애틀 때였다. 신입생이라고는 해도 나는 편입생이었으니 3학년이었고 그 사람은 2학년이었다. 지역 특성상 선후배 간의 규율이 세서 후배가 먼저 술자리를 과하거나 술잔을 거절할 수 없는데 밤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는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먼저 들어가야 할 사람을 자리 보내고, 자리를 정리한 후 다시 술자리의 분위기를 띄우고 끝까지 뒷정리를 하며 얼굴엔 짜증 한번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라면 첫인상이었다. 학교생활에서도 늘 웃는 얼굴에 누구에게나 친절하였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

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편입생이라 낯선 나에게도 늘 살갑게 대해주고 잘 따랐다.

한번은 그 후배가 어젯밤 술을 마시다 다리에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잡느라 고생했다는 후배들의 뒷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때도 술자리의 에피소드였거니 생각했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배의 여자 친구와 그 친구 간의 고민을 들어준 적은 있었지만, 둘은 과의 모범생 커플인 만큼 크게 걱정하진 않았다. 그렇게 나는 나대로 적응하느라 허우적대면서 시간은 1년하고도 반이 지났을 무렵 달이 밝은 추석 전날 즈음, 연락이 왔다. 그 사람이 옥상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이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그 친구를 조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기숙사 방으로 가지 않고 그 당시 내가 다니던 절로 갔다. 대웅전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즈음 나에게도 그곳에서의 시간들이 그 사람이 아니면 나이지 않았을까 싶게끔 불안정한 나날이었다. 모두들 슬퍼했지만, 나에게 그 사람의 죽음이 작은 파문으로 번졌다. 그리고 그날 밤을 대웅전에서 지새우고, 그 절에서 만난 선방스님에게서 성철 스님의 책을 소개받았고, 내가 해야 할 공부, 일이 무엇인지 확신을 갖게 되었다.

훗날 그 사람이 고민했던 얘기를 다른 친구를 통해 전해 들었다. 그 사람은 다리가 불편하여 군대를 면제받았는데 그 다리가 점점 아파 와서 고민했다는, 여자 친구가 있기에 더 고민했다는 얘기였다. '그렇다고 죽는 길을 택했을까' 싶기도 했지만, 지나고 나니 그 사람의 고민이 이해가 되었다. 자신이 아는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정상인' 이었다가 점점 불편해지는 다리를 갖고 살아야 하는 세계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리라. 그 사람의 고민과 그 사람이 나아가지 못한 세계에 대해 이해하자 나의 상황도 이해가 되었다.

나 또한 그 당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내가 도와줘야 했을 때 도와주지 못해 잃어버린 소꿉친구에 대해 나는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내가 허우적대며 찾으려고 하는 것이 과거임을, 잃어버린 지금이 아닌 잃기 전의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나의 방황이 잃은 친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자책일 뿐임을 알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알(자신만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정상인'의 삶이란 세계에서 '불구, 장애'의 삶이란 세계로 나아가지 못한 그 사람처럼, 소중한 누군가를 잃은 지금을 인정 못해 잃기 전에 매달려 있었던 '나'처럼, 부자였다가 파산당해 자살하는 사람이 이겨내지 못한 가난의 세계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세운 '나'라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러한 각각의 세계들이, 경계들이 더 넓어져서 자유로워지는 삶은 가능한 것일까. 그 의문이 나를 이 길로 끌었을까. 자유로워지면, 더 넓어진다면 다른 이가 깨고 나오려는 알을 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 깨어져야 할 알도 없는 곳에서 자유롭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전까지 삶은 늘 알에서 깨어나기의 반복된 과정일지도 모른다. 알을 만들고 쌓고 그 안에서 다시 깨어나기의 반복 말이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제 내게도 익숙한 이 '운문사'란 알을 깨야 하는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운문사란 알 안에서, 화엄반이란 알에서 깨어나 차가운 공기를 맨몸으로 받아야 할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 얼마만큼 여기와 다른 공기와 햇빛과 바람에 빨리 적응하느냐, 얼마만큼 운문사 화엄반이란 알을 깨느냐의 문제가 곧 오리다. 그 길에 따뜻한 이 공기와 편안함을 기억 속에서 놓지 못해 허우적대지 않기를, 모두의 알이 잘 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젖은 털을 말리고 날개를 활짝 펴보길…….

어린 새가 낭떠러지로 향하지 않고 어떻게 날개를 펴겠는가. 

행복의 세 잎 클로버

명훈 / 사집과

초여름의 해가 내리쬐는 아파트 공원 잔디밭에서 한 아이가 무엇인가 찾고 있었다. 얼마나 열심히 찾던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을 궁금해하면서 한참을 지켜보던 학생이 묻는다.

“너 뭐 잊어버렸니?”

“아니요”

찾느라 대답하는 것도 귀찮은 아이는 보지도 않고 말했다.

“뭐 찾는데? 같이 찾아 줄게.”

“네 잎 클로버 찾아요.”

“네 잎 클로버는 왜 찾는데?”

“행복해지려고요.”

“너 바보구나. 네 옆에 있는 세 잎 클로버가 행복인데…….”

“…….”

주변에 있는 다른 클로버들이 행복인 줄 모르던 아이는 여전히 자라서도 열심히 이것저것 찾고 찾았다. 그러나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었으며 헛헛함이 커질 때쯤 내가 나를 세운 행복의 정의를 바꾸는 일이 생겼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고, 모든 만물도 역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았던 것이다. 그 후로는 ‘어떻게 하면 이 생을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죽지?’라는 물음에 초점이 맞춰졌고 결국 이런 의문들은 나를 자연스럽게 출가로 이끌었다.

그러나 출가 역시 막연한 행복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는지 만족보다는 여기저기 부딪히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걸음걸이, 말투를 시작으로 나의 하루를 가득 채운 걱정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나를 부정하는 것 같았고 그럴수록 내 안의 나는 더욱 커져갔다.

부처님의 말씀은 책에만 있는 좋은 글귀로 여겨졌고 내가 사는 집은 그것과 정반대인 삶,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생활에 부처님 말씀은 온데간데없는 부당한 곳이 되어버렸다. 그때부터 ‘어쩌면 다른 곳은 그렇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일어났다. 또다른 행복의 장소를 꿈꾸



었던 것이다. 그 도피안의 장소는 바로 강원…….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강원 역시 나를 놀라게 할 만큼 똑같았다.

‘왜?’라는 의문들로 가득한 치문을 보내고 나에게 주어진 사집의 첫 소임은 작은부전이었다. 무엇보다 어렵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어느새 내 입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만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하지 마세요,” 결국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기다리고 지켜보겠다는 스스로의 약속과 달라지는 상황에 지쳐갔다. 힘든 마음이 계속될수록 스님과 형님들이 생각났고, 그리움에 한 안부전화에 스님의 첫마디는 잘살고 있느냐는 물음이었다. “사람들은 제 말이 안 들리나봐요,” 이 말을 시작으로 결국 울어버렸다. 한참을 그저 듣기만 하시던 스님은 “너도 그랬다.”라는 짧은 말씀을 화두처럼 내놓으셨다. 이 한마디로 내 울음은 그쳐버렸다. 순간 정신이 멍해졌다.

강원에 오기 전 형님들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하던 나에게 형님이 해 줬던 말이 생각났다. “우리가 한마디를 해 주려면 얼마나 지켜봐야 하는지 알아? 말하고 나서 풀이 죽어 있으면 그건 또 얼마나 마음이 쓰이는데…….”

사제가 안 들어와서 애태우던 형님들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제라고 하시던 형님의 푸념을 봄 한 철을 겪으면서 조금은 알게 되었고 내가 잘못이고, 틀리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끊임없이 나를 공부시켜 주기 위한 관심과 배려들이었다. 세상은 오로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행복 역시 혼자서 만들고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행복은 결과물이 아닌 함께 부딪히고 모난 나를 다듬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 과정을 위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나를 도와주고 지켜봐 주고 있었지만 그저 눈먼, 무명에 쌓여 있는 내가 보지 않고 듣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참으면 다른 이는 더 참아주며 이 세상은 내가 잘나서 혼자 살았던 삶이 아니라는 것, 세상은 결코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사집의 마지막 철을 남겨놓고 알게 된 것이다.

그렇게 내 안의 틀을 깨고 나서야 내 주변의 세 잎 클로버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만족할 줄 모르고 늘 다른 곳, 다른 것, 다른 이들을 꿈꾸던 내가 정말 바보 같음을 알게 되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과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경계들이 나를 성장시켜 주는 세 잎 클로버들임을 이제서야 그 꼬마는 알게 된 것이다. 이제 그 꼬마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곳 운문사에서 행복할 수 있는 법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갈 것이다. 지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세 잎 클로버들처럼……. 終

작은 활력소

제준 / 사미니과



치문 여름철 나의 소임은 바깥종두였다. 지정된 소임 없이 살았던 첫 철을 떠올려 보면 병고자도 많고 다른 반에 비해 나이도 많은 백씨 스님들을 보면서 나는 조금이라도 반을 위해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었다. 다행히 대중에서 행자시절을 보내며 겪었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 반을 위해 나서는 일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나아서 도와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은 조금씩 나를 버겁게 만들었고 잘 따라오지 못하는 도반스님들을 못마땅해하기 일쑤였다. 그런 반복되는 감정 속에서 산만해져 버린 마음을 추스르고 싶었다. 지정된 소임 없이 이리저리 불려다니며 충분히 운문사 곳곳에 적응했지만 단조로운 생활에 무기력해진 나는 종두 소임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다. “꼭 종두 소임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외치며 종두 소임을 맡게 되었고, 건강한 몸으로 치문의 첫 철을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임에 임했다. 바깥종두라는 소임은 나에게 작은 활력소를 주었다. 후원의 긴장감, 대중 공양을 차리는 책임감에서 오는 신심, 찬상을 나르며 바라보는 호거산은 나에게 모든 기운을 주는 것 같았다. 심지어 강렬한 여름 햇살도 나를 위로해 주는 바람도 내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는 도반이 되었다. 같이 소임을 맡은 도반스님들도 각자 맡은 임무를 잘 해줘서 그저 고맙기만 한 나날들이었다.

그런 즐거움도 잠시,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종두라는 소임을 강원에 적응하는 새로운 돌파구로 느끼기 시작하며 소임을 통해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해가는 중에 뜻하지 않게 종두 소임을 반 철도 채 살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게 되었다. ‘만세루 책임자’, 그것은 또 다른 나의 소임이었다. 만세루 책임자 소임은 뒤늦게 합류하는 소임이라 종두 소임과 같이 점해도 별 탈 없을 거라며 결정했던 것과 달리 상반스님의 걱정을 듣게 되었다. 그것으로 당시 나에게 새로운 돌파구로 절실했던 종두 소임을 마쳐야 했다. 어렵게 끝나버린 소임에 집착한 탓일까?

또다시 돌아온 단조로운 생활에 나는 스스로의 감정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불려다니며 방황 아닌 방황을 하게 되었다. 도움을 요청하는 도반스님에게 “왜 나야?” 하며 짜증으로 답하며 내 몸과 마음조차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시비와 분별심만 더 키우게 되었다.

예전에 기꺼이 몸을 아끼지 않고 일에 뛰어들던 나는 어디로 가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에 한없는 괴리감을 느끼며 정체성마저 잃는 듯했다. 그때 문득 사형스님의 당부가 떠올랐다.

“도움을 요청할 땐 기꺼이 도와주되 먼저 손 내밀기 전엔 도와주지 말며 강원에서는 대중에 묻혀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어디에 끌려다니다 보면 내 공부를 놓치게 된다.”

그제서야 지혜롭게 행하지 못한 내가 참 부끄러웠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늘 사로잡혀서 나를 돌아볼 여유를 찾지 않았다. 그저 바깥경계에 끄달리며 거기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로 인한 무게로 버거워하면서도 막연히 도와야 한다는 생각은 나를 지치게 하는 결과를 컸을 뿐이었다. 만세루 소임을 살면서 흠어진 마음을 한곳에 모으려 노력한 결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어떻게 행하였을 때 행복하고 불행한지를 알게 되었다.

타인의 힘듦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묵묵히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에 여여해질 수 있기 위해선 내 중심의 힘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했을 때 나도 행복하고 타인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도반스님과 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큰일이 아니어도 되었다. 부반장스님을 위해 남겨진 간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것과 반장스님을 위해 열심히 설거지해 주는 것, 그리고 회계스님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적극 동참하는 것들이 결국 나를 위한 길이며, 모든 것이 수행에 작은 밑거름이 되는 것이었다. 도반스님보다 더 움직이고 덜 쓴다고 해서 스스로 분별심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또 다른 날에 누군가에 의해 쉴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강원에 들어와서 도반스님들이 나에게 붙여 준 별명이 있다. 준장군, 능력자, 고급인력, 흥반장, 자관기 전문가……. 그 별명들의 공통적인 의미는 모든 것에 만능이며 지치지 않고 잘한다는 뜻이다. 그 별명처럼 분별심으로 인해 스스로를 지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나를 지키는 힘을 찾았고,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잘함으로써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치문의 한 구절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앞으로의 강원생활을 해 나갈 것이다. 나의 머티로운 면을 좋은 별명으로 만들어준 우리 반 스님들……. 늘 고맙고 행복하게 지금의 모습처럼 강원생활을 잘 회향하길 발원해 본다. ॐ



노스님이 들려주시는 참된 이야기

- 삼천포 용각산 관음사 현오 노스님을 뵈고 -

윤상 / 사집과



설레는 첫 탐방으로 함께 향한 곳은 삼천포의 앞바다가 훤히 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관음사이다. 사찰에 도착하니 여러 스님들께서 인자하신 모습으로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인자함 속에 편안하게 노스님의 살아 있는 수행의 이야기보따리 속으로 살짝 들어가 보았다.

도반스님들과 함께 관음사에 올라오는 길에 본 비석에 대해서 여쭙어 보았다. 그 비석은 노스님의 은사스님 비석이라 하셨다. 비석에는 상노스님이 오대산으로 공부하러 가실 때 지으신 계송이 있었다.

세상일 덧없어라,
백팔염주 목에 걸고 머리 깎고 출가하여 손에는 단주 들고 장삼은 걸치었네.
길망을 짊어지고 한 걸음 두 걸음 흐르는 물소리 들리나니 바람 소리 우짖는 새소리여,
폐곡한 숲 속에 묵묵히 서 있는 돌바위 제 모양을 자랑하고
서늘한 숲을 지나 월정사에 들어서니 좌우의



풍경소리 세상 시름 잊었구나.
 그윽한 향소리 법당에 들어서니 자비하온 부
 처님 미소를 띄우셨네.
 두 손 모아 합장하고 일심정례 하옵니다.

상노스님께서는 대성암, 국일암, 오대산 등 많은 곳으로 공부하러 다니셨다고 한다. 노스님이 출가하실 무렵 상노스님께서 반야암이라는 암자 뜰 앞에 엄청난 크기의 무가 있어 쑥 뽑는 꿈을 꾸셨고 그 뒤에 노스님이 들어왔다고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모습이 그때를 눈앞에 그리고 계신 듯했다. 현재는 노스님이지만 은사스님을 생각하실 때만큼은 어리디어린 천진난만한 상좌가 되는 것일까?

노스님이 출가하신 지는 어느새 50년이 훌쩍 넘으셨다. 그 당시에는 강원이 없어 어쩌다 큰절에 가서 법문을 듣고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하셨다. 노스님은 행자시절을 김해 수인사에서 지내셨는데 복을 지으라는 뜻인지 그때 사찰 내에는 요사채 불사가 한창이었고, 함께 있던 행자 네 다섯 명이 언덕을 넘어서 기와와 구들장을 전부 이고 나른 뒤 힘겹게 잠자리에 들곤 하면서도 그 다음 날이면 꼬떡없이 일어나 또 이어 나르고 해서 불사를 원만히 마쳤다고 하셨다. 그 당시 힘든 행자시절이 있었기에 현재에 무사히 승려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며,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시는 노스님……. 지금 강원이라는 출발선에 선 우리들도 끝

없이 자기를 낮추고, 인욕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머금고 계신 듯했다.

이젠지 그런 행자시절에 불사하신 것이 예삿일이 아닌 듯 도량이 참 넓고 정갈하다고 도량불사를 하시는 데 혹시 어려움이 없으셨느냐고 질문을 드리자 노스님께서는 절 불사를 하기 전에 ‘불사를 원만히 성취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발원을 하며 천일기도를 하셨다고 한다. 불사를 하기 전에 그 불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신심이 나서 간절해지며, 그 간절함을 토대로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생기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노스님께서는 불보살님들께 참 감사하다고 하셨다. 불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기도하는 마음이짐으로 시주의 공덕에 감사하고 신심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가피력을 입으시고 열심히 불사를 하신 이 도량을 상노스님께서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다. 강원에 있으면서 조그만 불사를 한다고 하면 얼굴부터 일그러지고, 몸이 힘들 것부터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졌다. 또한, 일을 하기에 앞서 그 불사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성을 가득히 쏟아 일하시는 그런 모습과 마음에서 노스님이라는, 어른스님이라는 존칭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신심 있는 행자시절을 보내신 후에는 양산 내

원사, 덕산 대원사, 불영사 등 선방에서도 오랜 시간 정진하셨다고 하신다. 지금은 관음사에서 중생 포교에 매진하시지만, 선방에 다니실 때는 생사대해를 꿰겠다는 신념 하나로 수행하셨다 한다. 서장을 배우고 선가귀감을 배우면서 간혹 동경한 선방……. 노스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금방이라도 바람을 메고 나를 깨우치기 위해 떠나고픈 충동이 일어났다. 노스님께서는 선방에서 정진하실 때가 황금시대였으며 지금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에 많은 아쉬움을 비치셨다. 그리고 우리 한국 간화선이 최고라며 학인들에게도 강원을 졸업하면 꼭 선객이 되어야 한다고 일러주셨다.

야 하며, 그런 기도를 하고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피를 입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간절한 염원으로 기도를 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예쁘게 봐주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심 하면서 정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하셨다.

학인스님들이 힘든 소임을 살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더욱 열심히 수행하라는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 대중이 나를 공부시켜주며 대중 속에서 이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내야 한



노스님의 말씀이 무르익을 때쯤 우리들이 수행하면서, 신심을 내기 위해 챙겨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여쭙었다. 신심이라는 것은 믿음, 곧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이기에 웃어른스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야 하며, 경을 보고 믿는 마음을 자꾸 내어야 한다고 하셨다. 큰스님, 선지식을 많이 친견하고 행적을 살펴보고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믿음이 자꾸자꾸 솟구쳐 난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런 조그맣고 큰 믿음들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야만 나아가서는 장애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우리가 승려생활을 무사히 잘하려면 큰 복 없이는 안 된다며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확고한 원을 꼭 세워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 불보살님들께 ‘승려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원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다는 노스님의 말씀. 내 몸 조금 더 노력하면 상대방이 편안해지듯이 자기를 조금만 낮추어 살아간다면 대중과 융합되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큰 공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잔잔한 물결같이 지금도 마음을 울린다.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시듯 노스님이 살아오신 이야기와 한자를 이용한 재미있는 유머, 포근한 격려의 말씀도 잊지 않고 해주신 현오 노스님, 우리보다 먼저 부처님 곁에 온 것뿐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들도 부처님의 길을 부지런히 따라가리라 다짐해 본다. ❸



존경하는 노스님께...

佛 敬 하 는 노 스 님 께 ...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세요? 저 선학입니다.
고즈넉한 어둠 사이로 바람의 날카로운 음성이 스산해지는 겨울이 도래하였습니다. 눈 덮인 호거산의 의연한 모습은 시리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옹호해 주는 것 같아 볼수록 믿음직스럽고 든든합니다.

매번 방학하고 나서 개학 날이 다가와 무거운 발걸음이 운문사로 향할 때면 멀리서 보이는 노스님의 모습은 어릴 적 부처님만큼 커 보였던 모습이 아닌, 지금은 저보다 작아지신 모습에 눈시울을 붉히곤 합니다.

운문사에 와서 제가 먼저 안부를 여쭙어야 하는데....., 매 철마다 오는 노스님의 편지를 받으면 죄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항상 편지에 빠지지 않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언제 보아도 항상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제가 더 죄송하고, 감사한 데 말이지요......

출가할 때 지금은 힘이 들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부처님 제자가 된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된다는 노스님의 말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저는 너무 좋습니다. 부처님 제자가 된 것에....., 노스님을 시봉할 수 있음에......

가끔 생각해 봅니다. 어릴 적 우리 절로 오지 않아서 노스님을 뵈지 못했다면 좋은 인연, 좋은 말씀, 좋은 풍경들을 모른 채 살고 있었겠지... 하고 말입니다. 노스님! 앞으로 제가 해드려야 할 것도 많고, 보여 드리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편찮으시지 마시고, 제가 수행하는 동안 잘못된 부분들을 건책해 주시면서 오랫동안 노스님 시봉할 수 있도록 건강히 오래오래 사세요! 그동안 마음 아프셨던 일보다 더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키워 주시고, 부처님 제자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 사랑합니다 ♥

춥지만 따뜻한 겨울날에.....

佛紀 2557年 臘月 에

佛紀 2557年 臘月 에

선학 九拜 禮

시봉지향 侍奉之香 - 원택 스님을 찾아뵙고 -

해평 / 사교과



새벽 일찍 산문을 나서 향한 곳은 성철 스님이 계셨던 백련암이다. 올해가 성철 스님 탄생 100주년이라는 문구와 함께 가야산 자락을 물들이는 현수막은 그분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게 한다. 그런 분을 조용히 뒤에서 시봉한 상좌이신 원택 스님을 뵈러 올라가는 가야산 자락, 산자락이 높다고 힘겨워할 법도 하지만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심자들에게는 백련암으로 올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하기만 하다. 시자스님의 안내로 만나 뵈게 된 원택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운문』지를 보여 드리며 자리에 앉았다.

— 여러 책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운문』지를 보신 소감과 『운문』지에 필요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정 스님께서 성철 스님의 『본지풍광』, 『선문종요』 책을 발간할 때 하신 말씀이 “우리 한국 불교출판문화가 가장 안 되는 이유가 법공양이다. 나눠주고 나면 누가 보는지 안 보지도도 모르게 끝나 버리고, 나중에 누가 좋다고 해서 보려고 해도 책이 없으며 누가 다시 찍지도 않는다. 한국 불교의 출판문화가 발전하려면 정가를 붙여서 해라. 법공양 할 곳은 주더라도 정가를 꼭 붙여야 한다.”였습니다. 옛날 스님들 관념은 책을 판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법공양 해서 그냥 나눠주는 것으로 공덕을 삼는 것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은사스님께 말씀드리니 “그럼 나는 책 파는 사람이 되란 말이나? 서점에 정가를 붙여서 내놓는 것은 하지 마라. 인연이 되면 찍을 수 있다.” 하시며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가를 붙여야 된다고 거듭해서 말씀드리니까 마지막에 “법공양을 하면 책이 나왔을 그때뿐이고 정가를 붙여서 안 팔리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잘 팔리면 책방에 영원히 남는다는 그 말이지.” 하시며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운문』지도 힘든 강원 생활을 하면서 학인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숨씨를 모아 내는 것이니 어른스님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그래야 『운문』지도 운문사에서만 걸돌지 않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어른스님 시봉하면서 신심도 있고 존경심도 있지만, 뜻에 안 맞는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견뎌 내셨습니까?

“육조 스님이 대학 안 나왔잖아. 책 보지 말고 화두만 해.” 스님께서 항상 저한테 하시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젊은, 한창 책을 보는 것을 좋아할 나이에 책을 보지 말라고 하니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남들은 책 본다고 있는데 화두만 하라고 하니 속병이 날 수밖에요. 어느 날 신문 반 쪼가리가 바람을 따라 마당



에 굴러다녔는데 그걸 주워서 바로 아궁이에 넣었으면 괜찮았을 것을 읽다가 큰스님께 들켜 호되게 혼나고 난 뒤에는 화두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화두를 든 지 3년 만에 상기병이 와서 선방에도 못가고 상기 치료한다고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스님께서 하신 백일법문 녹음테이프를 옮겨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내려고 한 게 아니라 자꾸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흘러가 버리고 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앞뒤가 헷갈리기도 하고 해서 한 것이 4~5년 걸렸습니다. 72년 1월에 들어와서 75~76년까지는 혼자 화두 든다고 하다가 상기 오고 뒷방에서 스님 상당법어만 전념해서 하다 보니 81년에 스님께서 종정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달 안 돼서 『본지풍광』이 나오고 그 다음해에 당신이 직접 원고를 작성한 『선문종요』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른스님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무엇이 건디게 했느냐고 물었지요? 회한하게도 나는 스님께 섭섭해도 금방 잊어먹고 범문하셨던 이야기를 하시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가서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요리조리 변화하지 않는 진득한 성격이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한번은 스님께 “이제 제가 정말 보따리 싸가지고 선방을 가고 싶습니다.” 하니 “뭐 인마! 지금까지 10년, 그게 뭐 많이 있었다고 그러냐! 옛날 스님들은 20~30년도 시봉했는데!” 하면서 딱 잘라 버리셨습니다. 보통 그러면 비구스님들은 바랑 짊어지고 가는데 나는 ‘그것도 가지 말라 하시나 보네.’ 하고 발걸음을 되돌렸습니다. 그렇게 옆에서 시봉하다 보니 잔병치레를 많이 하시는 스님을 끝까지 모시게 되었지요. 하지만 다른 젊은 수좌들이 그렇듯이 늘 마음은 모시는 동안에 잘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했던 시절이 많았습니다. 공부도 하고 싶고 책도 읽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끓던 시절, 어떻게 보면 스님께서 그러한 망상을 잠재워 주기 위해서 백련암에 머물게 하신 것 같습니다.

— 스님을 모시고 살 때의 수좌정신과 지금 선방 수좌스님들의 모습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이 백련암에만 살고, 스님 옆에만 있고, 선방에 가서 치열하게 정진을 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듯저렇듯 이야기하는 입장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성철 스님과의 불연佛緣으로 모셨던 스님들은 지금 다 조실스님이시지요. 스님 살아계실 때만 해도 수좌들의 성질이 거칠어서 대중공사도 많이 일어났지만

그런 반면에 용맹정진 하자 하면 쉽게 뭉쳐서 일주일씩 자기들끼리 철저히 하는 막무가내 정신이 있었습니다. 정말 치열하고 용맹스럽게 화두를 놓지 않으셨지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의 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수좌들한테는 밀고 나가는 그 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대중이 한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소한 것 가지고도 티격태격하는 일이 많았지요. 그러다 보니 공사가 많이 벌어지고 그럴 때마다 어른스님들의 지혜나 수행의 힘을 느낄 수 있었는데 요즘은 큰방에서 공식적인 10~12시간 참선을 하고 나머지는 각방 생활을 한다 합니다. 자기 방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섭을 안 하니깐 그런 점에서는 조용하고 안정적이지만 옛날만큼 대중의 육하는 강한 힘을 찾아볼 수 없고 개인주의 성격이 강하게 선방에 나타나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 요즘 스님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스님들이 어떤 마음가짐, 자세로 사회 활동에 임해야 하겠습니까?

일부에서는 왜 스님들이 평생 선방에 앉아서 정진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우리 사회에서는 스님들의 큰 자비력으로 사회의 구석구석에 힘이 되는 에너지를 바라고 있는데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원성이 많습니다. '선방에 앉아서 빨리 도를 깨치든지 그렇지 않고 20~30년 선방에만 앉아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너희들도 육을 먹지 않느냐?, 빨리 나와라' 등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또 수좌들로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관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부님이나 목사님처럼 사회와 더불어 사는 성직자가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깨우쳐서 부처님의 도를 이어가는 수행승입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이 수행을 마칠 때까지는 산중에서 고고한 자세로 수행만 전념해야지 성직자처럼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은 우리 수행승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말을 합니다.

선방에서 화두 들고 있는 분은 수행이 우선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수좌입장에서 그런 기개가 있으니깐 20~30년 평생 부처님 혜명을 잇는다고 산중에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에 다 나와 사회 참여한다고 하면 그것도 수행전통을 박서는 환영받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는 복지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을 하는 비구니스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참선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나와서 우리와 더불어 약간만 힘을 보태주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고 불교의 좋은 점을 심어줄 수 있는데 몇 안 되는 우리가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하는 아쉬운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선택해서 봉사하는 시스템이지 종단에서 밀어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복지에 관심이 있어도 복지재단이 있는 곳으로 가면 고생만 하고 뒤를 받쳐 주는 것도 없고, 자기 뒤에 누가 올지 알지도 못하는 후계자를 키울 수 없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승려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원에서 많은 교육 개혁을 시도해야 합니다. 도를 이루겠다는 스님들은 그쪽으로 철저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보다는 내 능력을 가늠해 봐서 사회봉사, 자비행으로 평생을 바치겠다 하면 그런 것에 대해 생활할 수 있도록 종단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스님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인력도 모자라고 있는 상황에서 능력 있는 유능한 스님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기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른스님들,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빨리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 은사스님과 뜻이 맞지 않아서 자신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은사스님의 뜻에 위배가 되더라도 밀고 나가야 할지 난감합니다.

소신껏 해야 됩니다. 스님이 되어 평생 우리 세대같이 어른 존중하는 것이 뼈에 녹아 있는 것도 아니고 부담스럽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파토가 납니다. 내가 싫은데 은사스님 말씀만 듣고 그러다가 내가 생각하는 인내의 한계가 넘으면 보따리 싸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옛날의 우리처럼 무조건, 끝까지의 근기가 되지 않습니다. 되면 끝까지 모시고 살겠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른 스님들은 중노릇 잘하라는 관점에서 우리를 나무라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옆에 있어라 하는 것이지 인생 망치려고 내 옆에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종같이 부려 먹으려고 한다는 것은 나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른스님들은 1년이고, 2년이고 절집에 와서 살아왔던 것 그대로 일기장에 적어서 전수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의 행동 속에서, 세월 속에서 보여줍니다. 꼭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인다고보다 삶 자체가 염불하고 참선하는 그 모습을 통해 ‘아! 스님은 저렇게 사시는구나.’ 하고 익히는 것이 어른스님들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중노릇 잘하는 법입니다.



무조건 맞지 않는다고 사이가 벌어질 것이 아니라 어른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려 해보고 나서 그래도 내가 목표하는 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을 때 어른을 설득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 설득을 했는데도 안 될 때는 자신의 길을 향해 가도 되지만 처음 몇 번 해보고 안 맞는다고 짐을 싸거나 그러는 것은 상좌로서 또한 후배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강원을 졸업할 때쯤 되면 학인들의 마음이 산란하게 됩니다. 나의 길은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에 대해 걱정하고 고민하게 되지요. 그럴 때일수록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은사스님과 형님들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은사스님을 시봉한 이야기와 지금 현 학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들, 앞으로 출가하는 사람들을 위한 종단의 교육방침 등에 대해 자세히 들으면서 지금까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힘들다고만 한 스스로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 항상 어른스님들은 예전의 이야기만 하시고 현실은 모르신다고 했던 불만들, 지금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던 일들이 머릿속을 지나갔다. 지금보다 문명이 덜 발달되고 더 어렵던 시절, 어른스님을 시봉

하며 존경하고 받들던 원택 스님의 그 마음만큼은 무엇보다 순수하고 진실하지 않았을까? 말씀하시는 내내 당연히 시봉해야 할 일을 자랑스레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 하시는 스님의 모습이 백련암을 내려오는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따뜻하게 만들었다. ☸

붓다의 딸, 세상을 비추다

(원제 : KNEE DEEP IN GRACE-THE EXTRAORDINARY LIFE
AND TEACHING OF DIPAMA)

일원 /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우리는 한 생을 살아가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고통과 슬픔을 겪는다. 그것들의 원인은 타인이나 혹은 환경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스스로 자초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원인이야 어찌 됐든 그 고통과 슬픔의 기억을 간직하고 놓지 못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매 순간 기억과 경험에 속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도 모르게 과거의 기억에 현재의 일을 끼워 맞춰서 판단하고 감정을 덧붙이고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럼 그렇지.' 하면서 확신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러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하고 막연히 생각하던 중에 '붓다의 딸, 세상을 비추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붓다의 딸, 세상을 비추다』, 이 책은 '디파 마' 즉 '빛의 어머니'라고 불린 작고 왜소한 몸집을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이다. 저자는 아미 슈미트인데, 그녀는 디파 마의 사진을 한번 보고 강한 인상을 받은 후 디파 마의 인생 여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8년여의 기간 동안 미얀마, 인도, 미국에 있는 디파 마의 제자들에게 디파 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리해서 책으로 펴냈다.

디파 마의 본명은 나니 발라 바루아로, 1911년 3월 25일 미얀마 국경에 인접한 동벵갈(지금의 방글라데시)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다. 12살 이후의 삶은 그녀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 주었다. 당시 인도의 풍습대로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 낯선 나라 미얀마로 이주, 20년 만에 낳은 딸과 막내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생긴 심장병과 고혈압 등 육체적·정신적인 고통, 그것도 모자라 설상가상으로 7살의 어린 딸 디파와 함께 삶을 헤쳐나가야 하는 40대 중반의 미



망인. 더는 뒤로 물러설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벼랑 끝, 그곳이 디파 마가 서 있는 자리였다. 그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죽을 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고. 그녀의 대답은 ‘위파사나 수행’이었다. 디파 마는 미얀마에 처음 왔을 때부터 위파사나 수행에 뜻을 두고 남편에게 허락을 구했지만, 인도의 전통에 따라 주부로서의 의무를 모두 마칠 때까지 미루라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미 그때부터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면의 자유를 얻기 전에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마음의 울림을…….

인터뷰에서 디파 마는 수행의 목적을 “위파사나 수행의 목적은 모든 순간을 인식하고 매우 천천히 관찰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속박들(자기 착각, 의심, 관습과 의식에 대한 집착, 색욕, 악의, 갈망, 물질에 대한 갈망, 자만, 불안감, 무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속박들은 모든 속박이 사라져 버리는 깨달음의 4단계에 도달하게 될 때까지, 각 단계에서 하나씩 천천히 소멸됩니다. 속박들은 오일이 램프의 빛을 밝히는 것과 같은 원리로 탄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속박은 마음의 오일과 같습니다. 오일이 줄어들수록 심지의 빛은 약해집니다. 결국, 오일이 소멸되면 빛도 사라집니다. 일단 소멸되기만 하면 빛 재탄생의 주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탄생과 재탄생이 여러분의 손에 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디파 마가 겪은 삶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생긴 집착. 이것은 그녀가 위파사나 수행을 하게 된 계기이자 원동력이었다. 오직 슬픔과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자기 사랑(self-love)은 그녀를 깨달음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것들은 수레 바퀴가 황소 발굽을 따르듯이,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자연스레 이루어졌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변화되는 주위 사람들, 가까운 곳뿐만 아니라 먼 나라에서까지 위파사나 수행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 이들에게 디파 마는 각자의 상황과 마음 상태에 맞춰 때로는 강경하게 그리고 때로는 부드럽게 상대방이 스스로 한 계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끌어주었다. 특히 ‘주부들의 수호성인’이라는 별칭을 가졌던 디파 마는 주부들의 바쁜 일상에서 위파사나 수행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위파사나 수행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서구에서 불교 명상가로 이름이 알려진 조셉 골드스타인, 사론 살즈버그, 잭 콘필드 등도 디파 마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이들의 부탁으로 디파 마는 미국에서 초청강연을 했다. 이로써 디파 마는 ‘미국 불교 사회에 남방불교의 명상법을 정착시킨 최초의 여성 명상 지도자’ 이면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초청강연을 한 여성 지도자’가 되었다.

디파 마는 죽음의 문턱에서 수행이라는 답지를 들고 결코 놓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선근善根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려니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박함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가 디파 마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디파 마와 같은 답지를 들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또 혹자는 수행이라는 답지를 들고 있다가도 버거워서 더 가볍고 내 마음에 맞는, 쉽다고 판단되는 답지로 바꾸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디파 마가 우리에게 다가와 미소지으며 말할 것이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붓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을 막고 있는 것은 수행할 수 없다는 당신의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스님 스타일

요즘같이 스타일이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스님스타일은 어떠한 것일까? 현대사회가 겉모습에만 치중해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를 향해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으려면 스님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에 바른 견해와 바른 행동이 따라야 한다.

나의 안위보다는 대중과 중생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스님이며 수행자의 모습이다. 중생이 있는 곳이 비록 불구덩이일지언정 서슴없이 뛰어들어 그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지혜와 복덕, 자비행을 갖춘 스님의 모습이 현재를 살아가는 스님들의 진정한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올 한해 최고의 노래를 말해보라 한다면 아마도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를 뽑을 수 있다.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 수가 9억 20만 건을 돌파하는 신기록을 세우며 검색어 1위, 미국 빌보드 6주 연속 2위 등 전 세계인을 뒤흔들어 놓은 강남스타일을 접한 스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같이 말춤을 추며 즐거워했을까? 물론 한국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국을 알리게 된 것에 박수를 보내며 축하하고 좋아했을 것이다. 하지만 축하하는 것만으로 끝인지...

강남스타일은 누나스타일, 아저씨스타일, 경제스타일 등 많은 스타일을 만들어 냈다. 문득 매체에서 스타일들을 논하는 소리를 듣고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스님스타일은?' 요즘같이 스타일이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스님들의 스타일들은 어떠한가? 노래가사에서 나오듯 여기서 말하는 스타일이란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허세 부리는 그런 스타일을 말하고 있지 않다. 무슨 옷을 입었든지, 장식을 하고 있든지 간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개성과 내면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스타일을 표현하고 있다.

스님스타일은 그럼 어떠한 것일까? 스타일리쉬한 고급 원단의 승려복과 유명 메이커의 가방과 신발들을 신는 것이 스님스타일일까? 먹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 부실하다고 합리화하며 최고급 빵집이나 비싼 음식과 과일을 사 먹는 것이 스님의 스타일일까? 물론 위의를 세우기 위해 깔끔하고 색깔을 맞추는 등의 센스를 발휘하는 것은 좋다. 또한, 부처님께 최고의 공양물을 올리기 위해 비싼 가격의 과일과 음식을 사는 이유도 있다. 하지만 일반 재가

자들이나 사회에서도 가격을 들으면 망설여지는 그런 고급 아이템들을 입고 가지고 먹는 것은 스님 스타일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부처님 가르침 또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수행해 나아가는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리타분하게 전통만을 중시하면서 21세기의 첨단문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한 어울리지 않는다.

요즘 사람들은 트렌드를 중요시하고 급변화하는 대중매체에 노출되어 있다. TV의 광고를 보고 있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젊은 층과 상업적인 목적을 겨냥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신하고 진실하며 안정적인 것과는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런 가운데 스님들까지 그런 트렌드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흘러가되 불교의 정신이 무엇인지, 스님들의 위치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잃으면 안 된다. 겉모습에만 치중해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를 향해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으려면 스님들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에 경건正見(바른 견해)과 정업正業(바른 행동)이 따라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견해란 어느 한쪽에 치중해 있는 그런 견해가 아니다. 불교인이라고 해서 세상을 불교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너무 객관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곳을 애써 외면하면서 세상을 보는 것 또한 바른 견해라고 볼 수는 없다. 바른 견해란 내가 소속되고 위치되어 있는 현재의 지금 이 순간을 생생히 살아 있으면서 보라는 것이다. 그 순간순간을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의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바른 견해가 정립되어 내가 해야 할 일이,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결정되면 돌아보지 않고 바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정업正業, 바른 행동이다.

흔히들 말세여서 불법이 흥하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말세여서일까? 아니다. 말세는 그 옛날 부처님 재세시에도 있었고 열반하신 후에도 있었으며 고려, 신라시대 때도 있었다. 이 시대에만 말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가 되었건 내가 말세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세상은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말세로밖에 보일 수 없다. 내가 정견正見과 정업正業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세상은 바뀌며 그 바뀐 세상에서 모든 중생들은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안위보다는 대중과 중생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스님이며 수행자의 모습이다. 중생이 있는 곳이 비록 불구덩이일지언정 서슴없이 뛰어들어 그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지혜와 복덕, 자비행을 갖춘 스님의 모습이 현재를 살아가는 스님들의 진정한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만약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방편이란 이름 아래에 밀어 넣고 너무 오래 있다 보면 그 방편이 오히려 날카로운 독사의 이빨이 되어 날아오게 될지도 모른다. 임진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계사년을 맞이해야 하는 지금, 스님들이여! 성성적적하게 깨어 있는 스님스타일로 새롭게 시작해 보자. 12



▲ 오백전 기도 회합



▲ 동안거 결제제사



▲ 조성택 교수 특강



▲ 교화부 시장법회



▲ 제 4회 보현율원, 제 1회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제 49회 운문사승가대학 졸업식

운문소식

- 11월 28일 겨울철 개학공사 및 동안거 결제 제사가 있었습니다. 덕숭총림 방장이신 설정 스님께서 동안거 결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연불수업을 시작으로 요가외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12월 11일 학장스님과 대교반 스님들의 무료급식 봉사활동이 대구 서문시장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13일 경주 동국대학교 병원에서 대교반 스님들의 호스피스 봉사가 있었습니다.
- 12월 14일 겨울철 포살 법회가 청풍료에서 봉행되었습니다. 이날 포살법사는 일진 주지스님께서 맡아주셨고, 산내 암자스님들도 참석하였습니다.
- 12월 16일 오백전 백일기도 회향이 오백전에서 있었고 대웅전에서 명성 회주스님께서 회향법문을 해주셨습니다.
- 12월 19~22일 제 18 대통령선거 투표에 온 대중이 참여했습니다. 동지행사로 3박 4일간 임시 휴강하였습니다.
- 12월 22일 운문사 부설 운문유치원(원장 제 44회 도진 스님) 제 4회 재물간치가 있었고 교무 원모 스님께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 12월 23~24일 조성택 교수님의 '한국불교사'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25일 교화부 스님들이 주관하고 대중스님들이 후원한 어린이 시장법회를 청풍료 어린이 법회장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 1월 1일 음력설이 겨울방학인 관계로 양력 송구영신送舊迎新, 항수해례와 사성례로 새벽예불을 봉행하였습니다. 맹추위에도 불구하고 일반 불자님들도 많이 참석하여 기분 좋은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 1월 4일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월 19일 '성도제일'을 맞아 대중스님들의 철야정진이 있었습니다.
- 1월 24일 보현율원 제 4회,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제 1회, 승가대학 제 49회 졸업식이 대웅보전에서 거행됩니다.
- 1월 30일~3월 6일 35일간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 1월 31일 신입생 입학시험이 오전 7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도와주신 분

- 이기태 • 이정숙 • 최정희 • 황병석 • 조용범 • 지호성
 • 박영훈 • 배경숙 • 운산 강사스님 • 47회 무견 스님 • 광주정안사
 • 삼신사 이병준 • 해인사고불암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통권 123호, 겨울호, “同事…달”

사교의 마지막 겨울철, 임진년 마지막 달인 12월, 모든 것이 마지막인 이때 항상 드는 생각은 그해 정월에 세운 1년 계획입니다. 올해 이것만은 꼭 하겠다는 다짐과 계획들을 얼마만큼 지켰는지, 성취했는지 나 스스로 점검을 하는 때입니다. 그 점검을 토대로 다가오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는 반복 속에서 우리의 수행이 무르익어져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새로운 주인을 만나 임진년을 뛰어넘었던 『운문』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소소한 변화로 풍성하고 예뻐진 『운문』지를 계사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 설레기도 하고 두려움이 앞서지만, 항상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는 여러분이 있기에 접어놓았던 날개를 펼쳐봅니다. 어렵고 힘든 역경이 설사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운문인이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편집실의 문을 활기차게 열어봅니다. - 映祚



영산회괘불탱 관세음보살

겨울은 계절로 분류하자면 한 해의 마지막을 뜻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 익숙해져 버린 겨울이 아닌 처음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자칫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태해질 수 있는 지금 시원한 얼음냉수욕으로 새로운 계사년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겠습니까? - 擎儒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학인스님들의 기고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등 독자의 소리를 담습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123호 겨울호 「운문, 운문인」은 쉽니다.

운문사승가대학에서는 2013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운문사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공고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공고



- 자 격** 1. 2012년 가을 수계자까지(행자교육 43기 이전)
2. 타 승가대학생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 모집인원** 사미니과 ○○명
- 시험과목**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본인 법명 도장 및 증명사진(장삼·만의 착용) 2매
5.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및 최종학력 증명서
- 준 비 물**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동방아
(복장은 반드시 사미니 의제 착용, 구족계 수지자는 제외)
- 모집기간** 2013년 1월 15일(음력 12월 4일) ~ 2013년 1월 30일(음력 12월 19일)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 도착일시** 2013년 1월 30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 시험일시** 2013년 1월 31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 교 통 편** 대구 남부 버스정류장에서 오전 7시 ~ 오후 7시까지
운문사행 시외버스 수시 운행(운행간격 1시간)

운문사승가대학 학장 홍륜 · 주지 일진

- 모집대상**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3년도 봄 구족계 수계 예정자 포함
- 모집인원** ○○명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율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은사스님 추천서 4.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5.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6.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7. 증명사진 2매
- 전형방법** 서류심사, 면접
- 준 비 물** 가사, 장삼, 승려증
- 전형일시** 2013년 1월 30일(음력 12월 19일) 오후 2시

운문사 승가대학원장 명성 · 보현율원 율주 홍륜

※ 승가대학 신입생, 보현율원 및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雲門僧伽大學

714-881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번지 雲門寺 / 편집부 (054) 370-7139 / 증무소 (054) 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겨울호 · 통권 제123호 · 2013년 1월 15일 발행 · 등록 1995년 3월 29일 · 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 · 운문승가대학 / 발행인 · 명성(전임호) 고문 · 진광 / 편집 · 운문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 · 영조 / 편집위원 · 효업, 나경, 재범, 주성, 규현 / 사진 · 편집부 / 표지사진 · 영조(하안세상, 하안마음) / 삽화 · 능과 / 편집디자인 · 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 426-3395